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46호 【루계 제24659호】 주체103(2014)년 9월 3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우리 식 경제관리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자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며 절대불변의 혁명방식이다.

오늘의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에 맞게 우리 힘으로,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고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도 우리 식대로 해결하여 하루빨리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이 꽃펴나는 새 세기 경제강국,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천만군민의 비상히 앙양된 열의에 의하여 경제전선이 비약과 혁신의 기상으로 약동하고있다. 농업과 경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건설부문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경제를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올해 상반년기간에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수산부문에서 물고기대풍이 이룩된 사실만 놓고서도 지금 우리 경제가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섰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우리에게는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물질경제적잠재력과 사회정치적조건들이 다 마련되여있다. 문제는 현실발전의 요구와 당의 의도에 맞게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어떻게 개선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물려주신 우리의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이 땅우에 하루빨리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원대한 포부를 지니시고 경제관리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세기적비약과 변혁의 웅대한 구상이 펼쳐지고 혁명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로선을 비롯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는 경제강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속에서도 용을 쓰며 전진하는 자립경제의 활력에 넘친 모습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백두산대국의 희망찬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은 그 어디에서 본딸데도 없고 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다. 우리는 기어이 우리의 힘, 우리 식으로 경제관리문제를 해결하여 주체적인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우월성과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경제관리사상과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면서 주체사상을 구현한 독창적인 경제관리리론과 원칙, 방법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워진 조건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종자도 밝혀주시고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와 잠재력도 마련해주시였다.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경제관리의 원리와 방법을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구현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사업이다. 우리는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해나가는것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업적을 빛내이고 한평생의 념원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사업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지녀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밝혀주신 경제건설사상과 방침을 강령적인 지침으로 틀어쥐고 경제관리를 대원수님들께서 의도하신대로 개선하고 완성해나가야 한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제사업과 관련하여 제시하시는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방침들을 깊이 연구하고 경제관리실천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는데서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는것은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사회주의의 경제적기초가 허물어지게 되며 나아가서 피로써 건설한 사회주의제도자체를 지켜낼수 없다.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사회주의원칙을 굳건히 고수하며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신념이 없으면 일시적인 경제적난관앞에서도 동요하고 딴눈을 팔게 되며 사회주의원칙에서 리탈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 우리의것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이 땅에 발을 붙이고 기어이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려는 비상한 각오를 지녀야 한다.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과 위력을 힘있게 떨쳐나가야 한다.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객관적경제법칙과 과학적리치에 맞게 하여 최대한의 경제적실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의연히 어려운 조건에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전력, 식량문제를 비롯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기초적인 문제들이 아직 원만히 풀리지 못하고있다. 현실은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로 아끼고 하나라도 쪼개쓰며 효과적으로 리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경제건설력사이자 조국번영의 력사이며 인민생활향상의 력사이다. 우리는 인민들의 복리증진과 전사회적리익, 혁명과 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경제지도와 관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과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 가치법칙과 같은 경제법칙들과 그와 관련한 경제적공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생산과 기업관리의 모든 공정과 요소들을 과학화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새 기술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여 우리 경제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켜나가야 한다.

경제관리를 개선하자면 경제지도기관들과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경제의 발전은 과학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세우고 나라의 자원과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며 생산의 끊임없는 장성과 경제의 전반적균형을 보장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혁신적안목에서, 발전적견지에서 보고 풀어나가야 한다.

내각은 나라의 경제사령부이다. 내각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기업체들이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라의 전반적경제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며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을 바로 조종해나가야 한다.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여 모든 경제부문들과 전반적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이 주관하여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당과 국가, 인민앞에 지니고있는 무거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경제관리개선을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하루빨리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생활문제를 풀데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사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념으로 체득하여야 하며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반드시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져야 한다. 경직을 풀고 앞선 단위와 빨리 발전하는 세계를 내다보면서 사업을 새롭게 착상하고 대담하게 작전하며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경제관리개선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발기들을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어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당의 결심과 의도가 빛나게 실현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부문 일군들이 혁명임무수행에 전심전력하고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도록 그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짜고들어야 한다. 경제지도일군, 기업관리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는데서 당적, 국가적립장에 서지 못하고 본위주의를 부리는것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강위력한 정치군사적담보가 있으며 애국열의로 충만된 천만군민이 있기에 경제강국건설의 미래는 창창하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당의 의도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감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이 2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태양의 궁전을 찾은 그들은 숭고한 인민관, 후대관을 지니시고 후대교육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주체교육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참된 교원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겨보며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모신 홀에 들어섰다.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그들은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영생홀들에 들어선 그들은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주체교육의 밝은 미래가 더욱 앞당겨지고있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심이 어려있는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에 교육사업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

벌가리아단체 불레찐특간호 발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에서 8월 28일 불레찐특간호를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9월 9일에 즈음하여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력사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된다.

1945년 8월 15일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를 패망시키고 마침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조선의 분렬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1945년 9월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강점지역에서 군정을 실시하였으며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의 북반부에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였다.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남녀평등권법령 등이 발포되였다.

미국은 친미정권을 세우려는 각본에 따라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조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48년 4월 평양에서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고 전조선적인 민주주의적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과업을 밝히시였다.

하여 전조선적인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사회주의조선의 력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있으며 실업이란 말조차 모른다.

국가가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보장해주고있으며 세금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철폐되였다.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형편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

수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있으며 빈부차이가 극심하다. 집없는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으며 각종 세금이 범람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서고있다.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한다.

【조선중앙통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8월계획 빛나게 수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틀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8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석탄공업성에서

석탄공업성에서 8월에도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1월부터 현재까지 계획보다 수십만t의 석탄을 더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와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는 화력발전소들에 필요한 석탄을 최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8월에도 화력탄보장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도 화력발전소들에 필요한 석탄을 최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는데 력량을 집중하면서 전차와 탄차, 레루, 동발나무를 비롯한 설비, 자재들을 앞질러가며 마련하는데 큰 힘을 넣어 생산성과를 확대하였다.

계획수행기간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탄부들의 열의를 부쩍 높여 증산성과를 확대하였다.

안주지구, 강동지구의 탄광들에서도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예비채탄장을 더 많이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갱막장마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활발히 벌려 현행석탄생산을 끊임없이 늘이였다.

강서탄광, 삼신탄광, 금야청년탄광, 전천탄광, 사리원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좋은 생산성과를 거두었으며 천내지구와 북부지구의 탄광들에서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8월에 석탄공업부문의 탐사대들에서 시추작업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석탄증산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탐사성과를 이룩하였다.

철도성에서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8월 화물수송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철도성과 각지 철도국의 일군들은 련관부문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중요물동수송에 큰 힘을 넣으면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평양철도국에서는 중요공업부문들에 필요한 물동을 우선적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렬차편성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그 운영에서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나갔다. 특히 집확보정형과 집중수송렬차들의 운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기관차, 화차들의 맞물림을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대고조전투장들에 필요한 물동을 지표별로 실어나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함흥철도국에서도 일어났다. 국의 일군들은 기관차와 화차들의 기술상태에 맞게 방향별, 구간별에 따르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물동수송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이곳 수송전사들은 화차수리와 점검보수를 빈틈없이 하고 기관차의 실동률을 종전보다 높임으로써 물동수송계획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였다.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개천, 청진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기관차와 화차배차조직을 짜고들고 집임자들과의 사업을 빈틈없이 하여 중요물동수송에서 련일 성과를 확대하였다. 라선철도국에서도 집중수송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화차편성과 맞물림을 합리적으로 하여 높은 수송실적을 기록하였다.

전자공업성에서

전자공업성에서 8월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성에서는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 중앙동물원개건전투장을 비롯한 중요건설장들에 보내줄 대상설비생산을 다그치면서 각지 공장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평양자동화기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5월 1일경기장에 보내줄 배전반생산을 전부 끝낸데 이어 위성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보내줄 제품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8월생산계획을 105%로 수행하였다.

새날전기공장에서는 일군들이 과학적인 경영전략을 세우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며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전자제품개발회사에서는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동하여 탁상형, 판형콤퓨터를 비롯한 지표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함흥영예군인자동화기구공장을 비롯한 성아래 다른 공장들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일터마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지표별계획수행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전자공업성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8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뜻깊은 올해를 더욱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기계공업성에서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한 올해신년사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기계공업성에서 8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계획수행기간 성아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영농부속품과 건설대상설비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영농부속품생산의 큰 몫을 맡고있는 룡전기계공업관리국아래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일터마다에서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8월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집단적혁신을 창조하였다.

대안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청천강전역에 보낼 첫 발전설비생산을 결속한 성과와 함께 8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올해중에 계획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발전설비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한 혁신의 기상을 계속 힘있게 떨치고있다.

성아래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와 안주절연물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적인 인민경제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8월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불리한 생산조건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많은 량의 철정광을 철의 기지들에 보내주었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은 직관, 방송선전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공정별교차생산과 설비들의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생산조직을 짜고들었다.

선행공정을 지켜선 로천분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설비의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만가동을 보장하고 여러가지 앞선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발파회수를 늘이였다. 굴착기운전공들과 대형자동차운전사들은 철광석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면서 많은 량의 철광석을 실어날랐다.

박토콘베아사업소에서는 현대적인 파쇄설비들이 자기의 위력을 발휘하도록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벨트콘베아로선에 대한 정비보수를 잘하여 박토처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선광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장성의 예비를 기술적진보에서 찾고 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그들은 공정간 협동을 강화하고 선광실수률을 높여 같은 조건에서 많은 량의 철정광을 생산하였다.

공무분공장과 정머리분공장을 비롯한 보장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같은 전력과 자재로 더 많은 설비와 부속품을 생산하여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는데 한몫하였다.

본사기자

—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합니다.》 김정은

위대한 진리의 힘을 과시해온 사상전의 빛나는 력사

위대한 선군의 내 조국이 비약의 나래를 펴고 최후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올해를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휘황찬란한 설계도들이 통이 큰 작전으로 펼쳐지고 곳곳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내 조국땅에서 이룩되고있는 새라새로운 기적과 사변들을 두고 세계는 놀라움의 눈길을 보내고있다.

조선은 과연 무슨 힘으로 그처럼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며 승리만을 떨치는것인가.

이 물음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하나의 목소리로 힘차게 대답한다.

—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승리한다!

바로 여기에 사대와 교조의 뿌리가 깊숙이 박혀있던 이 땅우에 어떻게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이 일떠섰으며 세계적인 정치적동란과 제국주의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강경보루가 솟아올랐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력사의 가장 뚜렷한 대답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또한 유일한 무기도 사상입니다.》

나라의 발전과 민족의 장래는 어떤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탁월한 지도사상을 지침으로 삼는 인민이라야 위대한 혁명력사를 창조하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다.

이것은 지나온 인류력사가 보여준 철리이다.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진 우리 혁명의 자랑찬 력사적로정을 되새겨볼수록 우리의 추억은 주체의 려명이 력사의 암흑을 밀어내던 그때로 끝없이 달린다.

10대의 시절에 벌써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위대한 철리를 밝히신 어버이수령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이 땅에 승리의 새시대를 장엄하게 펼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할 공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정규적인 무력도, 국가적후방도 없는 적수공권상태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에서 유일무이한 무기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이였다. 바로 그 위대한 사상의 힘으로 우리 혁명의 1세들은 동지를 얻고 무기도 해결하면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이 땅에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올수 있었다.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력사의 그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나는 혁명투쟁을 시작하면서부터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고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혁명투쟁을 벌려야 한다는 사상을 밝혔다. 우리는 이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20여년간의 간고한 투쟁을 벌렸으며 해방후 새 조국건설과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도 하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도 하였다. 우리는 오랜 기간에 걸친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검증하였다. …

정녕 어버이수령님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위대한 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시여 이 땅에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워주신 희세의 위인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해방후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라는 자주강국건설의 최상의 목표를 내세우고 전인미답의 길을 용약 헤칠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 옷이 아니라 오직 조선옷이 맞는다고 하시며 새 조국건설도 우리 식의 로선과 방식대로 진행하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덤벼드는 원쑤들을 주체의 전략과 전법으로 타승하시며 우리 인민을 자주정신의 강자로 키워주신 절세의 위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화국이 걸어온 자욱마다에 전설처럼 수놓아져있다.

우리 조국의 빛나는 사상전의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련면히 이어질수 있게 되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투쟁함으로써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의 영향을 극복하고 민족자주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자기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올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이 그 어떤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은것은 바로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았기때문이라고 뜨겁게 강조하시였다.

이렇듯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끌어오신 사상전의 력사를 꿋꿋이 이어나가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것을 철의 신념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께서 지니신 숭고한 뜻에 떠받들리여 이 땅에 펼쳐진 사상전의 력사는 얼마나 뜨겁고 장엄하였던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

총포성은 울리지 않았어도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적들의 광풍은 온 나라를 휩쓸었고 난관과 시련의 장막은 조국의 앞길에 무겁게 드리웠었다.

사면팔방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들고 자연재해에 식량난까지 겹쳐들던 고난의 언덕에서 선군사상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수호전에 나서신 위대한 장군님!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고난이 휩쓸던 시련의 그 시기에 숨죽은 공장과 불빛꺼진 거리와 마을들을 지나 적들이 총부리를 겨누고있는 최전연의 고지들과 풍랑세찬 배길에 결단코 오르시였던가.

미제가 기고만장하여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험악한 정세속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사수하자면 주체사상의 구현인 선군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는 진리를 심장으로 절감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야전복을 벗으실 사이없이 우리 장군님 찾으시였던 지명들이 눈굽적시며 밟혀온다.

철령, 오성산, 대덕산, 351고지, 1211고지, 판문점, 초도…

철령을 쉼없이 넘으시고 최전방인 판문점에까지 나가시여 자주적인간의 존엄을 고수할 사생결단의 의지를 심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우리 무장력은 필승의 기상으로 끓어번지고 조국의 고지들은 난공불락의 성새로 강화되지 않았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총대는 단순히 조국을 지키기 위한것만이 아니였다.

그이께서 선군사상으로 열어주신 번영의 길에서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이 나래쳤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가 련이어 타올라 고난의 천리가 행복의 만리로 이어지는 경이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른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들, 굴지의 발전소들을 비롯하여 수풀처럼 솟아난 대기념비적창조물들,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훌륭히 변모된 농장벌들과 도처에 일떠선 현대적인 축산기지들, 아담한 문화주택들의 희한한 전경과 조국의 대지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선경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선군사상이야말로 령토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결코 크지 않은 우리 나라를 불패의 자주강국으로 세계의 정점에 떠받들어올린 위대한 힘이였다.

사상의 힘으로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혁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보다 큰 승리의 력사로 이어지고있다.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줄기차게 투쟁하여온것처럼 앞으로도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그날의 말씀에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이 땅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실 그이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담겨져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 령도적권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가 마련되였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서는 일대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해온 지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그 길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도 있다는것을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뿐만이 아니다.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찾고있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사상, 자주의 혁명학설인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지구상의 그 어느곳에서나 참된 자유와 행복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넋으로, 투쟁의 기발로 힘차게 나붓기고있다.

온 세계가 우러르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이 태여난 조국에서 수십성상 그 위대한 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닌 남다른 행운과 긍지, 영원한 행복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들고 사상의 힘으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갈것이며 그 무궁무진한 힘에 떠받들리여 이 땅에는 최후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앞당겨지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예술선동의 첫 파견대

강성국가건설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대고조전투장들을 들었다놓으며 높이 울리는 경제선동의 힘찬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면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던 1970년대 예술선동의 첫 파견대가 조직되던 잊을수 없는 나날이 격정속에 어려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선동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주체59(1970)년 3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책임일군들을 만나시고 이번에 영화음악단(당시)에서 처음으로 공연대를 무어가지고 황해제철소(당시)에 나가게 된다고 하시면서 공연대가 나가서 활동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과 활동방향, 공연형식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예술단체의 작가, 예술인들을 들끓는 현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시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의도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황해제철소에 나가서 공연할 때에는 공연에 앞서 반드시 10분정도 정치선전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치선전은 당대회전으로 올해계획을 완수할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예술선전과 함께 정치선전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술인들의 자세와 립장, 생활준칙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현지공연에 나가 생활을 절도있게 잘하여야 한다. 절대로 잠자리나 음식에 대한 타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로동자들이 공연대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예술인들의 행동을 주목하여 볼수 있는것만큼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줄수 있도록 생활을 잘하여야 한다. …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은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공연대를 편성하고 선동문과 공연종목들도 로동계급의 심금을 울릴수 있도록 참신하게 준비하였다.

그후 일군들로부터 공연대를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히 선동문의 내용까지 알아보시며 공연대가 황철에 나가 강철전사들을 고무해줌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꼭 보답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황해제철소에 보내주신 영화음악단공연대, 그것은 예술선동의 첫 파견대였다.

격동적인 정치선동과 전투적이며 통속적인 공연은 황철의 강철전사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그들은 예술인들의 공연대를 제일먼저 자기들에게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기어이 당 제5차대회전으로 강철고지를 점령할 결의를 다지며 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기적은 황철에서만 일어난것이 아니였다.

예술선동의 첫 파견대의 힘찬 북소리, 나팔소리 높이 울려나오는 강선과 성강, 김철을 비롯한 전투장들이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지금은 나팔을 불며 혁신자들을 목마에 태우고 그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선동구호를 웨치며 그들의 성과를 열렬히 축하해주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지만 이처럼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예술선동이 처음으로 창조되였을 때에는 참으로 대단하였다.

예술선동의 첫 파견대가 온 나라를 들썩하게 하던 그때로부터 어느덧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항일유격대식으로 들끓는 전투현장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 높이 울리던 1970년대의 그 정신은 오늘도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심장속에 살아높뛰고있다.

본사기자 백영미

탁상교양자료에 어린 다심한 손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나가야 한다.》

주체87(1998)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한 녀성중대를 찾으시였을 때에 있은 일이다.

중대교양실의 책상마다에는 사상교양사업에 리용하고있는 교양자료들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대에서 자체로 만든 교양자료들이라고 하시면서 손수 탁상일지형식으로 된 두툼한 교양자료들을 한장한장 번져보시였다.

교양자료의 마지막장까지 다 펼쳐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주 잘 만들었다고, 매 장에 간단명료하게 한 문제씩 써놓으니 병사들이 리용하기도 편리하고 리해하기도 쉽겠다고 하시면서 아주 실용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중대지휘관들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가지 교양자료들을 알기 쉽게 일지형식으로 묶어놓고 아무때나 볼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인민군대에서는 교양사업을 하나 해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실속있게 하고있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제목과 주요내용에 색연필로 밑줄을 그어놓았는데 눈에 선뜻 띄우고 보기에도 좋다고 하시며 품을 많이 들였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대들마다에서 탁상교양자료를 앞을 다투어 만들고있는 실정을 알게 되시였다.

이런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양자료를 군인들이 자체로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는가고, 이 많은 량을 자필로 쓰느라고 적지 않은 품을 들였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자신의 생각을 터놓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인들이 발기한 탁상일지형식의 교양자료를 통일적으로 출판하여 모든 중대들에 내려보내주는것이 좋겠다고, 그러면 군인들의 수고도 덜고 내용과 형식도 단일화되여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인쇄할 때 여러가지 색갈도 깔고 각이한 활자를 리용하여 눈에 확 띄우게 하라고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사랑하는 병사들에게 새로 출판한 탁상교양자료를 안겨주고싶으시였다.

그 절절한 마음을 담으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대를 잡고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싸우는 우리 인민군전사들을 위해서는 아낄것이 없다고, 우리는 모든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며 품이 좀 들더라도 탁상교양자료를 잘 만들어 빨리 보내주어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하나의 탁상교양자료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우리 장군님의 세심하신 보살피심은 정녕 끝이 없으시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한 손길에 의해 탁상교양자료는 대량 출판되여 모든 중대들에 보급되였다.

본사기자 림정호

사상의 위력으로 승리를 떨쳐온 나날에

사회주의공업화실현

1950년대 중엽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세로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동시에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하지만 우리 당내에 기여들었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들이 제시될 때마다 남의것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보면서 맞지 않으면 덮어놓고 반대하여나섰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철저히 뿌리뽑을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44(1955)년 12월 어버이수령님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제1차 사상일군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사상사업의 근본원칙을 천명하시면서 사상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차 사상일군대회를 계기로 우리 당사상사업에서는 주체가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으며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청산되고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되였다.

이렇듯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상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난 결과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던 이 땅에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이라는 력사의 기적을 안아올수 있었다.

80년대속도창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당사상사업부문앞에는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있었다.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의 성과적실현은 당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이러한 때인 주체70(1981)년 3월 조선로동당 제4차 사상일군대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의에서 선전선동사업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된 조건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화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선전선동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며 당사상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조선로동당 제4차 사상일군대회를 계기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에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이 우리 민족과 인류공동의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경축되고 80년대속도창조의 불길속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이 일어나게 된것은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세차게 타번지는 조선속도창조열풍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주체의 사상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오늘 우리 당사상사업에서는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당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선포 40돐을 계기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전례없이 큰 규모로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의 위력을 최대로 높여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리정표로 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계기로 당사상사업이 사람들의 심장에 투쟁의 불, 애국의 불을 지피는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의 포성이 힘차게 울리는 가운데 온 나라가 조선속도창조투쟁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날에 날마다 끝없는 비약을 이룩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보현선생님의 묘에 화환 진정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보현선생님의 서거 59돐에 즈음하여 2일 만경대에 있는 선생님의 묘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선생님의 묘앞에 놓여있었다.

김보현선생님의 묘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화환진정에는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 오수용동지와 임철웅내각부총리,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교육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김보현선생님의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혁명학원, 교육기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일가분들을 강직하고 대바르게 키워 혁명투쟁에 내세우시였으며 만경대가문의 애국, 애족, 애민의 가풍을 굳건히 이어놓으신 김보현선생님의 고결한 생애를 돌이켜보며 묵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싼 마리노공화국 집정관들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싼 마리노

싼 마리노공화국 집정관

안나 마리아 무치올리각하

쟌까를로 까삐끼오니각하

나는 싼 마리노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들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당신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9월 2일 평 양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의 숙소 방문

【평양 9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2일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를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자랑찬 새 력사가 창조되고있는 시기에 진행되는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게 된 참가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숙소마다에 넘쳐났다.

박봉주동지,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한광복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숙소를 찾아 대회참가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지난 기간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원혁명가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사회주의교육테제의 기치높이 후대교육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 일군들과 교원들을 축하하였다.

교육혁명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것을 당부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교육자된 영예와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높은 교육과학성과로 받들어나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시켜

신천군 지남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백두의 혁명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주, 월사업계획에 혁명전통학습내용을 반영하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특히 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적극 벌리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영농전투로 들끓는 포전에 나간 리당의 한 일군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격식없는 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진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한 항일혁명선렬들처럼 백두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수 있다는 그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로농통신원 리광춘

당세포를 적극 도와주어 당의 기층보루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게 하자

하부지도에서 틀어쥔 두가지 묘술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자면 전당에 세포를 중시하고 적극 도와주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당세포의 전투력을 높이 떨치자면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세포를 중시하고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는 이 측면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하였다.

마음속에 들어가는것만큼

전당이 세포를 도와줄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당일군들은 누구나 당세포에 내려간다. 그런데 그 생활력이 발휘되는 측면에서는 단위마다 차이가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당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한데 있다. 당위원회일군들은 실지 이것을 체험하였다.

지난 7월 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철호동무는 명학탄광 3갱 채탄3중대의 생산실적이 처지고있는 문제를 놓고 담당지도원과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었다.

그는 긴급대책이 세워지기 전에는 월계획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였지만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였다. 당책임일군이 그곳 막장을 찾았을 때 당원들은 동발나무와 필요한 소공구만 잘 보장되면 월계획을 능히 할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매달 탄광에 내려간다고 하는 담당지도원이 이런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르고있는데 있었다.

원인은 불보듯 명백하였다. 담당지도원들이 하부지도사업계획에 따라 매달 당세포에 내려간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사무실에서 몇몇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오다나니 해당 단위의 실태를 손금보듯이 알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이 사실에서 당위원회책임일군이 찾은 교훈은 컸다. 당책임일군은 담당지도원들에게 요구성만 높인것이 아니라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었다.

담당지도원과 함께 명학탄광 3갱 채탄3중대 당세포에 내려간 당책임일군은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놓고 당원들과 담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주었다.

당책임일군의 방조속에 그는 아래에 내려갔어도 당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초급일군들에게 이 자료, 저 자료를 요구하던 지난날의 지도방식에서 벗어나 당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해나갔다.

중대가 7월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면 결정적으로 동발나무가 보장되여야 한다는것을 포착한 그는 당세포당원들과 함께 동발나무끌기를 하면서 땀을 흘리였다. 쉴참에는 노래도 불러주면서 그들과 섭쓸렸다. 그러자 서먹서먹하던 감정은 없어지고 채탄공들과 담당지도원사이는 가까와졌다.

오랜 당원들이 자기들의 속생각을 터놓기 시작하였다. 막장작업에서 실적을 올리자면 소공구가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된 담당지도원은 공무직장의 수리공들속에 들어갔다.

소공구가 보장되면 막장작업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알게 된 공무직장의 로동자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의 소공구가 막장에 보내여졌다. 담당지도원의 방조속에 그처럼 어렵게만 생각되였던 7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이것을 계기로 당위원회일군들속에서는 당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일군들이 당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을 발동하니 걸린 문제들이 풀려나갔고 생산이 치달아올랐다. 불리한 조건을 맞받아나가며 기업소안의 모든 탄광들에서 7월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대고조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요즘 당일군들이 당세포사업을 진심으로 도와주자면 당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킬수 있다. 이것이 당위원회일군들이 찾은 교훈이다.

아는것만큼 도와줄수 있다

당일군들이 당세포사업을 착실히 도와주자면 높은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적지도를 바로할수 있으며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도 내놓을수 있다.

당위원회는 일군들을 당사업은 물론 현대과학기술과 자기 부문에 정통한 실력가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당세포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보고 이 사업에 상당한 품을 넣었다.

당위원회 비서 리철진동무는 하부지도사업요강에 탄광부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들을 학습하는 문제를 반영하고 해당한 과제를 준 다음 학습담화와 문답의 방법으로 총화하는 사업을 정상화하였다. 이 과정에 담당지도원들은 탄광부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걸린 문제를 앞장에서 풀어나가게 되였다.

실례가 있다. 탄광기계공장에서 10㎥압축기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부속품을 수리하지 못하여 설비를 세워두고있는것을 목격한 담당지도원 최진수동무는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에게 새로운 용착방법을 튕겨주어 수리기일을 단축하게 하였다. 담당지도원이 이처럼 기술자, 기능공들을 릉가하는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니 그들과 언어가 통하고 당세포사업에 대한 지도를 보다 실속있게 할수 있게 되였다.

당위원회는 그의 경험을 하부지도사업총화를 계기로 발표하고 보여주기를 조직하여 일반화하였다.

아는것만큼 주견을 세울수 있고 당세포사업을 더 잘 도와줄수 있다. 실천을 통하여 이것을 절실히 느낀 당위원회일군들은 당세포사업에 대한 지도를 착실히 해나갔다. 이 나날에 당세포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은 비상히 높아졌다. 한해에 10개 당세포가 충성의 당세포대렬에 들어선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모든 당세포들이 당을 억세게 받드는 초석,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자면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세포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이곳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의 주장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혁신적인 안목으로 정한 전형단위

운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세포가 강화되고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철저히 관철될수 있으며 우리 혁명이 빨리 전진할수 있습니다.》

언제인가 군적으로 충성의 당세포창조운동이 벌어지고있는 실태를 료해하던 운산군당위원회 책임비서 신명선동무는 스칠수 없는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였다. 생산단위들에 비해 비생산단위들이 충성의 당세포대렬에 많이 들어서지 못한것이였다.

군당책임일군은 군안의 어느 부문에서나 충성의 당세포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론을 세워나갔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전형단위를 옳바로 선정하고 그를 통하여 비생산단위들에서도 충성의 당세포창조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도록 하기 위한데 힘을 넣었다.

체신부문에서는 군체신소를, 교육부문에서는 온천고급중학교를 정한데 맞게 분담사업도 진행되였다. 이렇게 되여 군당위원회 비서, 부장을 비롯한 책임적인 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게 되였다. 여기서 그들이 잘한 점이 있다. 당세포를 도와주는 사업을 혁신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서 묘술있게 진행한것이다.

우선 군체신소를 맡고 내려간 군당일군들의 실례를 놓고보자. 이 단위에서 중추적역할을 수행하고있는 선로, 방송작업반을 시범단위로 정한것도 잘한것이지만 그 단위를 도와주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한것이 좋은 점이다.

군당위원회 비서 박철수동무가 군체신소에 나갔을 때였다. 시범단위로 정한 두 작업반이 앞장서야겠는데 실적을 내지 못하고있었다.

군당책임일군은 담당지도원, 초급당일군과 함께 두 작업반 성원들이 일하고있는 작업현장들을 찾았다. 그때 군당책임일군은 당원들의 숨은 노력을 소개하도록 하고 당세포비서들과 마주앉아 그들의 애국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당세포비서들은 물론 담당지도원과 초급당일군이 받은 충격은 컸다.

군당책임일군은 그후에도 두 작업반 당원들을 자주 만나고 당세포가 그들과의 사업을 더욱 진지하게 해나가도록 하였다. 점차 당세포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였다. 당세포비서들의 역할이 높아지면서 두 작업반의 당원들은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전달하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의 초소를 굳건히 지켜갈수 있었다. 결국 제발로 걸어나가는 전투력있는 단위로 되여 두 작업반 당세포들은 충성의 당세포대렬에 들어서게 되였다.

군당책임일군은 두 작업반 당세포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이 과정에 북진체신분소 당세포가 충성의 당세포로 되였다.

온천고급중학교의 경우를 보아도 그러하였다. 부장 현천호동무는 꾸리기에 필요한 자재보장에 관심을 돌리면서 교원당원들의 본분에 맞게 자질을 높이고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였다.

당원들이 앞장에 서니 날이 갈수록 모범교수자와 새 교수방법을 창조하는 교원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담당한 학급이 모두 2중영예의 붉은기학급, 영예의 붉은기학급으로 되였다. 이런 성과속에 교원1세포와 교원2세포가 충성의 당세포대렬에 들어설수 있었다. 이것은 교육부문의 당조직들에서 충성의 당세포창조운동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게 한 좋은 계기로 되였다.

전형단위가 늘어나고 그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단위들에서는 물론 군상업관리소를 비롯한 비생산단위 당조직들에서 당세포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혁신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온 군에 충성의 당세포창조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이처럼 당일군들의 혁신적안목은 충성의 당세포창조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본사기자 장철범

다시금 느끼게 한 집단의 힘

문평제련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문평제련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이 당세포들의 사업을 묘술있게 지도하고있다. 조액직장 려과작업반 당세포를 잘 도와준 사실만 봐도 알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비서들의 사업에서 기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잘하여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것입니다.》

어느날 초급당비서 류영길동무는 려과작업반에 나갔다. 그곳 당세포사업을 밀어주기 위해서였다. 로동자들과 담화하는것으로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기가 오르지 않습니다.…》

한 로동자의 솔직한 고백이였다.

낡은 건물, 환하지 못한 환경… 바로 동무들의 몫이라고, 주인된 본분을 다하자고 일깨워줄수도 있었다. 하지만 초급당비서는 도리여 자신을 비판했다.

《일이 바쁘다고 내 관심을 적게 돌렸소. 욕 많이 하시오.》

결함을 주관에서 찾는 초급당비서의 품성에 로동자들은 머리를 숙였다. 가책이 되여서였다. 초급당비서는 매 사람의 건강과 가정형편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물어보았다. 그러면서 걸린 문제를 풀 묘안도 함께 찾아나갔다. 당원인 리동무는 선봉적역할로, 보배덩이 류동무는 새 기술혁신으로, 작업반의 막내이는 항상 명랑한 얼굴로…

이런 식으로 집단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할수 있다고 하면서 초급당비서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돌리였다.

살틀한 정이 넘치는 초급당비서의 이야기에 끌린 작업반원들은 스스럼없이 말했다. 자신들이 조건에 포로되여 우는 소리만 했다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분발하여 일하겠으니 믿어달라고. …

그것을 목격한 당세포비서 강문길동무의 충격은 컸다. 이신작칙과 함께 요구성을 높이면 집단의 위력이 최대로 폭발될것이라고만 여기였던 자신이였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었다. 하지만 정을 주고 믿음을 주며 작업반원들의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초급당비서의 사업방법에 탄복하면서 그는 정신력발동의 묘술을 또 한가지 찾아쥐였다.

초급당비서가 노린 목적이 달성된셈이였다. 이미 당세포비서와 자주 만나는 과정에 그에게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잘 알고있은 초급당비서였다. 그래서 현장에 나온것이였다.

당세포비서들은 새로운 결심을 품고 당세포사업을 이끌어나갔다. 인재로 불리우는 류동무의 사업을 잘 밀어주고 생활을 돌봐주는 과정에 그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성공시키게 하였다.

앓는 리동무의 집으로 귀한 약재와 생활필수품을 마련해가지고 간 작업반원들, 꾸리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솔선 앞장에서 마련한 당원들…

성과가 올랐다. 일터의 면모가 일신되고 생산이 높아져 려과작업반은 제련소적으로 소문난 기둥작업반으로 되였다.

려과작업반 당세포와의 사업에서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오일손동무를 비롯한 초급당일군들은 공무직장 준비작업반 당세포를 비롯한 당세포들과의 사업도 진취적으로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당세포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묘술있게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은 얼마나 혁신적인가!

본사기자 전경서

떠나간 당세포비서의 마음을 안고

중구역상하수도관리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당세포비서들의 사업정형을 잘 알고있다고 자부해온 그였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였다는것을 앞에 놓인 수첩은 말해주고있었다.

수첩의 글줄은 중구역상하수도관리소 초급당비서 김문덕동무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배관공 조동무문제—오늘중으로 초급당위원회와 토의한다. …

조동무, 앞으로 일을 더 잘하여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꼭 지니기를…》

불치의 병으로 떠나간 중구상수작업반 당세포비서의 유물이였다. 온몸을 휩쓰는 고통속에서도 한 인간의 성장을 위해 마음쓴 당세포비서의 불같은 모습이 그 글발에 비껴왔다.

자책이 컸다. 그 뜨거운 진정을 일찌기 알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당세포비서의 아팠던 마음을 대신 안고 풀어주는것이 그의 생을 빛내여주는 길이며 그가 생의 마지막시각까지 정을 쏟아붓던 작업반의 당세포사업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초급당일군은 생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모든 당세포들이 광범한 군중을 당과 혈연의 정으로 이어주는 혈맥이 되고 일심단결의 성새를 받드는 성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초급당일군은 다음날 아침일찍 중구상수작업반으로 나갔다. 수첩이야기가 나오자 작업반장은 눈물부터 쏟았다. 당세포비서가 조동무문제로 얼마나 속을 많이 썼는지 모른다고, 가정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겹치자 맥을 놓고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던 조동무가 지금처럼 안착되여 일하기까지 그 희열이 넘쳐났다. 그의 이름이 속보판에 자주 올랐다. 조동무는 작업반에 없어서는 안될 보배로 둥둥 떠받들리우게 되였다.

직맹초급단체일군으로까지 성장한 조동무는 마침내 꿈에도 소원하던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당원들의 한결같은 축복을 받으며 조동무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대렬에 들어서던 날 초급당비서는 떠나간 전 당세포비서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이렇게 뇌이였다.

(만근동무, 동무가 그토록 마음아파하며 왼심을 쓰던 조동무문제가 풀렸소. 그가 어엿한 당원이 되였단 말이요. 이젠 마음을 놓소.)

언제나 군중의 가장 가까이에, 마음속깊이에 있는것이 바로 당세포이다. 사람들은 당세포를 통하여 어머니당의 손길을 시시각각 느끼며 당과 혈연의 정을 나누게 된다.

사람들의 속마음을 제일 잘 아는 당세포비서들의 진정을 깊이 헤아려보고 실현시킬 때 일심단결의 성새를 받드는 성돌들은 얼마나 굳세여질것인가.

중구역상하수도관리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이 이것을 실증해준다.

본사기자 김향란

탄광 3갱에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탄부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 —천성청년 찍음 본사기자

알곡증산의 과학적담보를 이들처럼 찾아쥐자

중화군의 최근년간 농사경험을 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에서 증산의 중요한 예비는 현대농업발전추세에 맞게 영농방법을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최근 몇해동안 중화군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남다른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여러해동안 알곡생산량을 늘여온 이들은 지난해에도 정보당 수확고를 훨씬 높여 국가알곡생산계획수행에서 도적으로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그 비결은 알곡증산의 과학적담보를 바로 찾아쥐고 끝까지 실천한데 있다.

종자의 특성을 살린 기술

그 방법을 보면 우선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300배액에 5배의 진거름물을 섞었다. 여기에 씨앗을 12시간정도 담그었다가 꺼낸 다음 생물활성복합제를 분무해주는 방법으로 종자처리를 하였다. 결과 5일 될 때까지 종자에 입힌 영양물질에 의존해서 강냉이가 자라므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좋은 생육상태를 유지할수 있었다. 일군들은 이 기술을 적극 일반화함으로써 농장들에서 정보당 평균 1t의 알곡을 증수하게 하였다.

품종섞음재배기술을 도입한 실례를 들어보자. 몇해전 장마철에 련일 흐리고 비가 많이 내린 때였다. 한 포전에 한 품종의 강냉이를 배치하였는데 수정이 잘 안되여 이삭당 알수가 적어짐으로써 가을의 수확고는 예상외로 낮았다. 다음해에도 이런 현상이 안나타난다고 장담할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수정률과 수확고가 높은 품종의 종자만 보장해달라고 우에 손을 내밀수도 없었다. 무조건 제힘으로 해결방도를 찾아내야 하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군의 농사운명이 자기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분발해나섰다. 낮에는 농장포전들의 구석구석을 메주밟듯 하면서 실농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였고 밤이면 모여앉아 서로의 의견과 주장을 주고받으며 방도를 모색하였다. 시간을 짜내여 과학기술도서들을 탐독하고 농업과학자들을 만나 진지하게 토의하기도 하였다.

끝장을 볼 때까지 발바닥이 닳도록 뛰면 막혔던 길도 열린다. 일군들은 끝끝내 품종섞음재배기술이 장마철피해를 막을수 있는 좋은 방도라는데 대하여 확신하게 되였다. 즉 한 포전에 한 품종이 아니라 2~3가지 품종을 섞어 심으면 소출을 더 올릴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였다. 그것은 우선 매 품종들의 생육기일이 서로 달라 개꼬리들에서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길어진 결과 날씨가 불리해도 수정률을 높일수 있기때문이였다. 또한 유전적 및 생리적특성이 서로 다른 강냉이품종들을 함께 심으면 우성형질이 유전되여 천알무게가 높아지기때문이였다.

기술을 원리적으로 파악해야 지름길을 찾을수 있다. 일군들은 찾은 교훈을 귀중히 여기고 모든 농장들에서 포전별품종배치비률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시험을 하게 하였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어룡, 명월협동농장들에서 지력이 높은데는 수확량이 높은 품종과 그렇지 못한 품종의 비률을 7:3으로, 지력이 보통인데는 반대로 3:7로 배치하여 종전보다 품을 들이지 않고서도 강냉이수확고를 정보당 500~700kg, 최고 1t까지 증수하였다.

이 농장들만이 아니다. 군적으로 몇해동안 각이한 강냉이품종들을 섞어 심은 결과 수십일간 흐린 일기조건에서도 수정률을 높이고 천알무게를 늘여 정보당 소출을 높이게 되였다.

현실에 맞게 도입한 포기농사묘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일찌기 포기를 단위로 모든 영농기술을 적용하여 고르롭게 옹근소출을 내게 하는 포기농사를 잘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군일군들은 그 뜻을 받드는데서 알곡증산의 중요한 예비를 찾았다.

포기농사에서 이곳 일군들이 견지하고있는 원칙이 있다. 그것은 아무리 선진적인 영농방법과 기술이라고 해도 자기 군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연구하여 창조적으로 받아들인것이다.

논벼소식재배를 도입한 경우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그때 일군들이 제일 중시한 문제는 평당 포기수였다. 그것은 평당 포기수를 타산없이 줄이면 품은 적게 들지만 대신 수확고가 떨어질수 있기때문이였다. 따라서 농장들의 논특성이 다른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포기수를 정할수 없었다.

창조적으로 사색하면 묘술을 찾아내기마련이다. 일군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지대의 기상기후, 토양상태, 논벼품종 등을 고려하여 포기의 빛받이, 통풍, 영양물질보장과 흡수가 잘될수 있도록 포기수를 정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관봉협동농장에서 평당 포기수를 80, 60으로 놓고 같은 재배조건에서의 시험을 거듭하도록 하였다. 결과 질흙땅에서는 평당 80포기때에 수확고가 제일 높았다. 또한 줄사이거리에 대한 시험도 해보았는데 30㎝에 포기사이거리는 13.7㎝일 때가 좋았다.

일군들은 모내기때 줄방향을 바로 정하는 문제도 중시하였다. 줄방향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수확고가 차이났기때문이였다. 시험에 의하면 기본바람방향으로 줄을 잡았을 때 비료주는 량과 재배방법이 같은 조건에서 수확고를 5% 증수할수 있었다. 그것은 통풍조건이 개선되므로 벼가 자라는데 좋은 조건을 지어주기때문이였다.

포기농사에서 비료주기를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해결한 문제를 하나 더 보자. 일군들은 소식재배의 다수확조건을 필요한 이삭아지수를 확보하며 벼대를 굵게 하고 이삭이 충분히 여물게 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그들은 군안의 포전들을 발이 닳도록 밟아보았다. 토양의 부식질함량과 물리적성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여러해동안 비료주기시험을 진행하였다.

애쓴것만큼 소득이 크기마련이다. 일군들은 군안의 전반적인 논이 질흙땅인 조건에 맞는 비료주기방법을 찾아내게 되였다. 밑비료는 총비료량의 30%를 전층에 주는것이 좋았다. 그것은 질흙땅인 논토양이 영양물질을 일정한 기간 잡아둘수 있어 뿌리의 영양물질흡수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필요한 아지를 치게 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아지비료는 지력수준을 고려하여 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조절비료는 목표이삭아지수확보상태에 따라 질소비료를 총비료량의 40% 정도 주었다. 이렇게 해야 중간시기 모자라는 영양을 보충하여 아지들이 잘 자라도록 하며 헛아지가 생기는것을 막을수 있었던것이였다. 이삭비료는 총비료량의 30%정도 주되 작황을 보고 조절하였다.

결과 생육후반기에도 충분한 영양이 보장되여 아지를 실하게 하고 이삭당 알수를 최대로 늘이면서 잘 여물게 할수 있었다.

이것이 큰 은을 냈다. 지난해에도 관봉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들에서 전면적의 논에 소식재배를 받아들여 알곡생산량을 크게 늘일수 있었다.

옹근소출을 내게 한 두벌농사방법

군일군들이 알곡증산의 열쇠의 하나로 찾아쥔것이 두벌농사이다. 이것이 바로 당의 농업혁명방침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기때문이였다.

강냉이 대 감자겹재배에 의한 두벌농사를 도입한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여러해전 일군들이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거듭하던 때였다. 문제의 초점은 감자와 강냉이의 겹재배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이랑을 어떻게 만들어야 합리적이겠는가 하는데 집중되였다. 그때 그들은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농장원대중속으로 들어가 귀를 기울이였다. 일군들은 많은 사람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진지하게 토의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알수 있었다.

대중은 역시 선생이였다. 삼성협동농장만 놓고보더라도 자기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량을 늘이고있었다.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지난 시기 농사경험을 통하여 토지리용률을 최대로 높이면서도 비배관리조건을 개선하고 앞, 뒤 그루에서 다같이 옹근소출을 내자면 이랑을 종전보다 더 넓히고 두 이랑분의 감자와 강냉이를 각각 한이랑에 모아심는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랑을 80㎝정도의 너비로 크게 짓고 감자는 줄사이간격이 30㎝정도 되게 한이랑에 두줄모아 심었다. 강냉이는 줄사이간격이 40㎝정도 되게 한이랑에 두줄모아 심는 방법을 받아들이였다. 이렇게 하니 토지리용률이 높아지고 두 작물의 영양면적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였으며 김매기와 비료주기, 후치질과 북주기같은 비배관리조건도 유리해졌다.

일군들은 다른 농장들에서도 이 경험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그 은이 나게 하였다.

강냉이와 콩겹재배방법을 받아들일 때에도 일군들은 농장원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았다. 여기서 강냉이와 콩의 이랑배합비를 과학적으로 정하는것을 기본으로 보았다. 그것은 이랑배합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강냉이와 콩소출이 달라졌기때문이였다.

일군들은 즉시 백운협동농장으로 나갔다. 여러해동안 겹재배를 해본 이 농장의 경험에 의하면 이랑배합비를 6대 2, 8대 2로 정할 때 강냉이는 단작재배에 비하여 15%나 증수되였다. 비결은 해빛에 대한 요구가 높은 작물인 강냉이포기들에 해빛이 골고루 비치고 바람이 잘 통하여 좋은 생육조건이 보장된데 있었다. 콩은 해빛에 대한 요구가 강냉이보다 낮으므로 자라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 일군들은 이 방법도 모든 농장들에서 받아들여 그 덕을 보게 하였다.

품을 들인것만큼 열매가 큰 법이다. 군에서는 지난해에 그 전해에 비하여 알곡생산량을 30%나 증수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고 왕가물이 계속된 올해의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흙보산비료와 잎덧비료로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비료를 주어 좋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하기에 군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자기 군의 구체적인 조건에 맞게 관철할 때 알곡증수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할수 있다.

본사기자 태명호
본사기자 윤용호

중등일반교육부문에서부터 새 세기 교육혁명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새것에 대한 강렬한 지향은 비약의 원천

대동강구역 청류초급중학교 교육자들

창조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밤낮없이 끓어번지는 건설장과 고요한 사색의 세계속에 잠긴 연구소의 불밝은 창가를 생각한다. 하지만 새것이 여기에서만 태여나는것은 아니다.

창조의 길에는 그 어떤 평가나 명예도 바람이 없이 새것 또 새것만을 지향하며 묵묵히 일해나가는 교육자들도 서있다. 그들속에는 대동강구역 청류초급중학교의 교육자들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부문에서는 혁명의 요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중등일반교육을 비롯한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동강구역 청류초급중학교 일군들의 사업을 분석해보는 과정에 우리는 그들이 교원들과 학생들이 접촉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이는데 사업의 중점을 두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학교교장인 인민교원 정인숙동무에게는 하루에 열번도 더 들여다보는 수첩이 있다. 거기에는 그가 품들여 작성한 월간, 주간사업계획들이 적혀있다.

단 몇분의 공백이라도 있을세라 썼다가는 지우고 지웠다가는 또 덧쓰면서 세밀하게 작성한 사업계획들과 그 집행정형이 깨알같이 씌여진 보풀진 수첩,

그 갈피갈피를 번져보느라면 학생들에 대한 교원들의 과외학습지도정형을 손금보듯 알수 있다.

물론 학생들이 교원과 함께 있어야만 과외학습이 잘되는것은 아니다. 학생들 혼자힘으로도 복습과 예습을 할수 있다.

하다면 이 학교 일군들은 교원과 학생들사이의 접촉시간을 왜 그처럼 중시하는것인가.

정인숙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창조하여 구현하는 과정에 우리는 한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였습니다. 말그대로 학생들을 깨우쳐주는 식으로 폭넓고 심도있게 가르치자면 우선 교원과 학생들이 보다 친근해지도록 하는것이였습니다.》

옳은 말이였다.

교원의 지나친 엄격성은 학생들의 창조적인 사고를 제어할수도 있다.

학생들의 립장에서 그 문제를 보기로 하자.

학생들은 교원을 어려워한다. 이런 심리에 교원의 엄격성까지 겹친다면 두말할것없이 학생들은 교원에게 자기 생각을 털어놓기를 주저할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배워주는 내용을 원리적으로 충분히 리해하지 못하고 결과만을 암기할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피동적인 사고방식을 키워줄수 있으며 결국은 토론과 론쟁으로 수업시간의 대부분을 보내야 하는 새로운 교수방법이 은을 내지 못하게 할수도 있었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원과 학생들사이가 보다 친근해지도록 오후과외시간리용에 그처럼 품을 들이는것이였다.

수업시간은 물론 오후과외시간에도 학생들과 한자리에 앉아 문제풀이묘리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어깨우에 다정하게 손을 얹고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원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과정에 그들의 관계는 저절로 자연스러워지고 가까와졌다. 이 과정에 학생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것을 스스럼없이 물어보면서 자기들의 창조적사고능력을 한껏 높여나가고있다. 교원들은 또 그들대로 학생들의 심리를 더 깊이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교수수법들을 적극 탐구해나가게 되였다.

학교사업에서 또 한가지 좋은것은 일군들부터가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교원들이 진행하는 새 교수방법탐구사업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바로잡아주기도 하며 또 제때에 일반화하기도 해야 한다. 즉 높은 실력을 지닐 때만이 꼭 필요한 새것을 정확히 가려볼수 있으며 학교교원들의 새 교수방법창조열의를 더한층 높여줄수 있는것이다.

그러면 학교일군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어떻게 높여나가고있는가.

언제인가 진행된 중앙과학기술축전때였다.

한 전시대앞에서는 나이지숙한 녀인이 새로운 교육용프로그람의 용도와 특성에 대하여 참관자들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하고있었다. 주변에는 그의 설명에 이끌린 참관자들이 키돋움을 하면서 가득 모여들었다.

그가 바로 교장 정인숙동무였다.

어떻게 되여 그는 60이 훨씬 지난 나이에도 그처럼 현대과학기술까지 터득한 다문박식가로 사람들을 놀래울수 있었는가.

평범한 광산로동자의 자식들인 그의 9남매는 고마운 당의 품속에서 모두가 대학을 졸업하였다. 고마운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는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보람찬 사업에 한생을 바칠것을 결심하고 교단에 섰고 한생의 길동무도 교육자를 택하였으며 딸 역시 교단에 세웠다.

그러나 마음만으로는 결코 성실하게 지켜갈수 없는것이 교단이다. 오직 실력만이 교육자의 량심을 빛내일수 있다.

하기에 그는 프로그람제작을 지휘하며 교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했다.

—여직껏 얼마나 많은 새 프로그람들이 나왔는가. 하지만 그중에서 실지 교육사업에 보탬을 주는것은 과연 얼마인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교육자가 되기 전에 먼저 애국자가 되자.

그렇다. 애국심으로 불타는 심장만이 새것에 대한 지향이 남달리 강렬한 진짜배기실력가를 키울수 있다. 자그마한것이라도 조국에 진짜 보탬을 줄수 있는것을 내놓겠다는 그 진정은 그에게 첨단의 봉우리를 향해 솟구쳐오를수 있는 그렇듯 높은 실력을 갖출수 있게 해주었던것이다.

새것이라 할지라도 실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건수나 채우는것, 그런것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관점을 지닌 한 교육자의 사업이 주는 교훈은 참으로 귀중한것이였다.

이런 일군이 있는 곳에는 실력없는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다.

하기에 이 학교의 모든 교원들은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자질향상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새롭고 참신하게 하기 위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떨쳐나서고있다.

아직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학교지만 우리는 학교의 래일을 자신있게 그려본다.

땅속에서 소리없이 끓어도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분화구만을 찾는 용암마냥, 얼음장밑에서 용용히 흐르며 봄시위를 준비하는 대하마냥 그들의 심장속에 불타는 새것에 대한 강렬한 지향은 반드시 비약적인 발전을 안아오리라는 확신이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기때문이다.

본사기자 한경철

교수방법개선과 교육의 질제고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함께 온 나라 학교들에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열풍이 일고있다.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새 교수방법을 받아들이는데 앞장서온 김정숙제1중학교와 숙천군 영웅숙천고급중학교, 락랑구역 승리고급중학교의 뒤를 이어 많은 학교들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새 교수방법을 탐구하고 구현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고있다.

어느 소학교나 초급, 고급중학교들에 가보아도 새 교재에 정통하기 위하여 애쓰고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사색을 기울여가는 교육자들을 만날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새 교수방법을 탐구도입하여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자랑들도 많다.

교육자들의 이런 새 교수방법탐구열풍이 지금 교육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참으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혁명인재육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일대 사변이다. 우리 당의 이 중대한 조치는 기초교육단계인 중등일반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의 세계적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통찰과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조치이다.

◇교수방법을 개선하는것은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는데서 관건적인 문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수방법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교수내용을 잘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생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킬수 없으며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수방법을 개선하는것은 교육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이다.

그것은 우선 교수방법이 교육내용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교육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기때문이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과 그에 따르는 새 교과서들은 새 세대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그 내용과 형식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구현할수 있게 구성되여있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한 옳은 교수방법을 적용하여야 교육의 질이 담보되며 학생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교육내용이 교수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체득되기때문이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은 결정적으로 교육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교원들이 교수방법을 어떻게 혁신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교수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면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교원들은 주체의 교육사상과 리론,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사회주의교육학, 심리학, 전공과목교수법 등을 깊이 연구하고 선군시대 교육현실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따라배워 풍부한 교육방법론적자질과 능숙한 교육자적수완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교원들이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하며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독학가가 되여야 한다. 또한 자질향상사업을 교수교양사업과 밀접히 결합시켜 교수교양사업자체가 자질향상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는 경험발표회, 교수경연, 교수기량발표회 등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 교원들이 서로의 방조속에서 자질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현실연구와 견학, 참관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며 재교육체계를 통하여 교원들의 자질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교육자들은 교육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는 교수방법을 개선하는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교수방법개선에서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한다.

앞날을 내다보며 중시한 문제

안주시 영웅안주고급중학교에서

안주시 영웅안주고급중학교에서 최근년간 눈에 띄게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교원들은 도와 시적인 교수경연에서 항상 우승의 영예를 지니고있으며 해마다 수십명의 졸업생들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대학들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있다.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끊임없는 새 교수방법탐구와 교원들호상간, 학생들호상간에 벌어지고있는 실력경쟁열풍에 있다. 특히 신임교원들을 훌륭하게 키워 실력있는 학교의 대를 잇게 한 이야기는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방법을 개선하여야 교육에서 낡은 잔재를 뿌리뽑고 사회주의교육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도적으로 진행된 교수경연에는 경험이 많고 실력이 높은 교원들이 수많이 참가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영웅안주고급중학교에서 온 20대의 신임교원이 우승하여 경연참가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수학교원인 김윤미동무는 교원생활을 몇해밖에 해보지 못한 학교의 평범한 교원이였다. 그런 그가 도적인 교수경연에 참가하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8년만에 다시 이곳 학교의 교장으로 온 김대하동무는 학교사업을 료해하면서 생각이 깊어졌다. 그새 실력있던 로교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젊은 교원들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던것이다.

학교교육을 발전시키자면 교수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했고 교수방법을 개선하자면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그래서 그는 멀리 앞을 내다보고 신임교원들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내밀었다.

배명삼, 김승근, 안광국, 최정옥, 리상숙, 김진철, 김선영동무를 비롯한 학교일군들과 년한이 있는 교원들이 앞장에 서서 신임교원들의 자질향상사업을 잘 도와주는 한편 그들이 교수를 잘하는 교원들의 수업을 많이 보면서 좋은 점들을 분석하고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임교원들을 보여주기수업에 많이 출연시켜 교수방법을 부단히 세련시켜나가도록 하는것과 함께 년한이 있는 교원들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적극 도와주도록 하였다. 또한 신임교원들이 전공과목에 대한 교재에 완전히 정통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으며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참고서적을 수많이 마련해주었다.

그 과정에 신임교원들은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능란한 교수방법을 터득하게 되였다.

지난해 도교수경연에 누구를 내보낼것인가 하는 문제를 토의할 때에도 학교일군들은 학교의 명예와 관련되는 문제였지만 대담하게 신임교원들속에서 선발하여 참가시키기로 하였다. 그것은 신임교원들이 교수경연준비과정을 통하여 실력을 한계단 높이도록 하는 한편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앞서나갈수 있다는 자신심과 경쟁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김윤미동무가 1등을 하자 학교교원들의 경쟁열의는 고조되였다. 신임교원들은 교수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더욱 이악하게 노력하였으며 실력이 높은 교원들은 자만하지 않고 부단히 분발하게 되였다. 콤퓨터실력이 높은 신임교원들은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교수사업을 특색있게 잘하여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들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실력을 부단히 높이면서 새로운 교수방법들을 끊임없이 탐구도입하고있으며 교수에 리용할 다매체편집물들도 자체로 훌륭하게 작성하고 학과경연에 나갈 학생들의 학습지도도 흠잡을데없이 해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에게 교재내용에 대한 표상을 강하게 주는 훌륭한 교편물들도 척척 만들어내고있다. 이들이 만든 여러건의 교편물들은 올해 시와 도적으로 진행된 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학교의 경험은 결코 교육년한이 실력을 결정하지 않으며 만년대계의 교육사업을 위해서는 신임교원들을 키우는 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명훈

교정에 타번지는 탐구열풍

경암제1중학교에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탐구열풍이 일고있다.

학생들에게 하나를 배워주어도 산지식으로 되게 원리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날과 달을 사색과 탐구로 이어가는 이 학교의 일군들과 교원들이다.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는 이들의 얼굴마다에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앞날의 인재후비로 키워가는 교육자의 긍지가 한껏 어려있다.

실력을 절대시하고 자질향상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듦으로써 교원들이 깨끗한 량심과 높은 책임성을 다 발휘할수 있게 하는 자각적인 사업기풍을 확립한 경암제1중학교 일군들,

조국의 래일이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사색과 열정을 기울여가는 이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경암제1중학교는 교원들의 자질과 학생들의 실력이 높은 학교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으며 훌륭한 수재교육기지의 하나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교육자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보람찬 날들로 빛나야 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후대들을 위한 밑거름이 되여

문천시 영웅문천고급중학교 교원 최경진동무에게는 남다른 자랑이 있다.

주체98(2009)년 8월 몸소 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학생들이 전국콤퓨터프로그람경연에서 1등을 하면 꼭 자신께 편지를 하라고 믿음어린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그날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할 일념을 안은 그는 학생들의 콤퓨터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의 피타는 노력으로 올해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고급중학교부류 학과경연에서 이 학교의 길수원, 박진성학생들이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그는 오늘도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의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 *

신의주시 김금순초급중학교 교장 문성실동무는 학교를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단위답게 훌륭히 개건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정열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다.

그는 해마다 30여명의 학생들로 백두산밀영고향집방문을 조직하여 학생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그는 수십명의 교원들이 10월8일모범교수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학교가 2중영예의 붉은기학교로 될수 있게 하였다.

문성실동무는 오늘도 10여명의 영웅을 배출한 자랑높은 학교의 전통을 빛내이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 *

성천강구역 하신흥초급중학교 부교장 김선화동무는 지난 45년간 후대교육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온 참된 교육자이다.

그는 김형직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생활을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데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쏟아붓고있다. 당세포비서인 그는 자신은 물론 교원들이 자질을 높이도록 적극 도와주고있다.

그 과정에 수십명의 교원들이 새 교수방법등록증과 실험기구 및 교편물창안증을 수여받았으며 10월8일모범교수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고 많은 학생들이 7.15최우등상 수상자들로 자라났다.

특파기자

최경진동무

문성실동무

김선화동무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도로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대성구역도시시설관리소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대중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당일군들이 대중을 교양하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실효를 거두자면 대중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바로 찾아쥐는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이 이에 대해 훌륭한 대답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사업에서는 또한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특성, 사상동향에 기초하여 사상전의 과녁을 바로 정하고 적중한 수단과 방법을 적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언제인가 홍건도간석지건설장에 나갔던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 강성철동무는 어느 한 굴착기운전공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었다.

자기는 속생각을 그 누구에게도 터놓은적이 없다고 하면서 굴착기운전공은 이런 말을 하였다.

—아들이 함께 굴착기를 타게 되니 생각되는것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걸리는것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지 못하여 아들앞에 떳떳치 못한것이다.

당책임일군이 그런 말을 왜 이제야 하는가고 묻자 그는 말하였다. 늘 현장에 나와 건설자들과 함께 등짐도 지고 돌도 쌓으며 일에 몸을 푹 잠그는 책임비서를 보게 되니 마음속생각을 터놓고싶어지더라고.

이날 당책임일군은 참으로 중요한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것은 대중의 마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은 일군들의 이신작칙이라는것이였다. 그리고 당일군들이 말을 앞세우는 사람보다 말없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것이였다.

그후 당책임일군은 가슴속에 남모르는 소원을 품고 사는 그 굴착기운전공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도록 적극 도와주고 이끌어주었다.

이런 일을 계기로 당책임일군은 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속에서 이신작칙을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으로 내세웠다.

그리하여 비서들인 문순남, 양권규동무를 비롯한 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은 물론 아래단위들인 건설사업소와 기계화사업소의 초급당일군들도 홍건도간석지건설장에 나가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게 되였다.

당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였으며 그것은 그대로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

당위원회에서는 다음으로 따뜻한 정을 부어주는 사업을 중요한 당적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갔다.

늘 집을 떠나 건설현장에서 자연을 정복하는 어렵고 힘겨운 투쟁을 벌려나가는 간석지건설자들은 가정적인 따뜻한 정을 그리워하고있다.

당위원회일군들은 이런 특성에 맞게 사업을 창조적으로 심화시켜나갔다.

당일군들은 현장의 혁신적인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건설자들의 살림집도 보수해주었으며 땔감도 보장하고 자식들의 장래문제를 위해서도 뛰여다니였다. 이와 함께 가족들로 현장지원사업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건설현장에서 가족들이 남편과 아이들과 반갑게 만나도록 하였다.

지난해에만도 련합기업소에서는 기술자, 혁신자들을 위한 소층아빠트를 건설하고 수십동의 새 살림집들을 지어 건설자들에게 배정해주었으며 260여동의 살림집을 보수하였다.

사업소들마다 남새온실과 버섯재배장, 축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려 건설자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당책임일군은 기업소의 당 및 행정일군들과 함께 이미 있던 단층짜리 목욕탕자리에 2층으로 된 창광원식목욕탕을 새로 일떠세울 작전을 하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우리 간석지건설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일인데 일군들이 한몫씩 맡아 해제끼자.

당책임일군의 말에 지배인 최영덕동무를 비롯한 기업소의 일군들모두가 지지해나서며 걸린 문제들을 저마다 맡아안았다.

창광원식목욕탕이 건설된다는 소식은 간석지건설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당위원회일군들이 자기들을 위해 마음을 쓰며 헌신의 땀을 바쳐간다는 소식에 감동된 건설자들은 홍건도간석지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당위원회는 또한 대중의 특성에 맞게 그들과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갔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해 적중한 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건설자들은 자연을 길들이는 사업을 하는 직업적특성으로 하여 성격이 쾌활하며 별로 숨기는것이 없이 마음을 툭 터놓고 말하는것이 특징이다. 이런 건설자들의 심리에 맞게 긍정감화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개별적인 건설자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속마음을 읽기 위해 당위원회일군들은 현장을 자주 찾군 하였다.

이 과정에 적지 않은 건설자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문제들을 풀어주게 되였다.

이곳 당위원회일군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하고있다.

—대중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자면 이신작칙, 뜨거운 정, 능숙한 군중공작방법, 이 세가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고결한 인민관을 대중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로 틀어쥐고 당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함으로써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있는 이곳 당위원회사업은 매우 경험적이다.

본사기자 리종석

로씨야를 방문하였던 최고재판소대표단 귀국

로씨야를 방문하였던 박명철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재판소대표단이 2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우상철 최고재판소 부소장과 알렉싼드르 찌모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마중하였다.

총련 금강산가극단이 떠나갔다

김철 부단장이 인솔하는 총련 금강산가극단이 2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김상규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일행 귀국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인 이노끼 간지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과 일행이 2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여러 나라 선수들이 함께 갔다.

비행장에서 장웅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과 마철수 조일우호친선협회 서기장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북침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야 한다

남조선에서 대규모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끝났지만 조선반도의 정세는 여전히 긴장하고 핵전쟁의 위험도 짙어가고있다. 그에 대한 내외의 우려가 커가고있는 속에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저들의 군사적망동이 마치도 《방어적》인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면서 합동군사연습을 앞으로도 계속할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킨 저들의 죄행을 합리화하고 어떻게 하나 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것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을 격분시키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내외호전세력의 악랄한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랜 세월 민족이 분렬된 속에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당하며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 우리 민족은 이 땅의 평화와 안정, 평화통일을 절실히 념원하지만 그것은 바란다고 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그처럼 애타게 평화와 통일을 절규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격화되여 겨레에게 불행과 고통만 들씌우고있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년례적인 방어훈련》의 간판밑에 끊임없이 감행하는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과 떼여놓고 볼수 없다.

남조선에서 때없이 벌어지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평화와 통일위업실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조선반도가 항시적인 대결과 긴장, 전쟁위험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은 결코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원칙과 방도가 없어서가 아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밝힌 7.4공동성명과 우리민족끼리리념과 북남관계의 발전, 평화번영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명시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의사와 념원,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을 정확히 반영한 중대한 북남합의들이 있다. 그것이 현실로 되였더라면 북남관계는 획기적발전을 이룩하였을것이며 나라의 평화통일도 그만큼 앞당겨졌을것이다.

북침합동군사연습은 북남합의를 뒤집어엎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노력을 방해하는 고의적인 반통일, 반평화행위이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화약내풍기는 전쟁불장난소동을 벌려놓으면서도 그 무슨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고 떠들어대는것은 저들의 범죄적흉심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각종 명목의 전쟁불장난소동들을 뻔질나게 벌려놓아 모처럼 마련되는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그때마다 망쳐놓으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내외호전광들의 죄행은 절대로 합리화될수 없다.

미국이 바라는것은 결코 조선반도의 평화적통일이 아니라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영구화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전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는것이다. 이번에 감행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도 미국이 저들의 전략적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돌리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침략과 간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책동의 연장이다. 조선반도를 항시적인 열점지역으로 만들고 저들의 지배적야욕을 채우려는것이 미국의 기본속심이다. 더우기 이번 전쟁연습은 북침핵선제공격각본인 《맞춤형억제전략》이 공식 적용된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이 극도에 달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침략적목적달성을 위해 남조선괴뢰들을 새 전쟁도발에로 극구 부추기면서 우리 민족에게 핵재난을 들씌우는것도 서슴지 않으려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북침합동군사연습은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를 위한 우리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우리 공화국은 올해에 들어와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특별제안, 정부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등을 통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관계개선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하고 조선반도에서 일촉즉발의 긴장을 유발시키는 모든 군사적적대행위를 중지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일방적인 선의의 조치도 취하는 아량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그에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으로 대답해나섰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이 애당초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군사적대결에 한사코 매달리고있는 조건에서 이런자들에게 기대할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내외침략세력이 날치는 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할수 없고 북남관계개선의 길도 열어나갈수 없다.

북남관계의 개선과 나라의 평화는 내외침략세력을 반대하는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투쟁으로 이룩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과 귀중한 재부가 외세의 침략책동과 그에 추종해나서는 매국역적들에 의해 침해당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을 바라고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가 떨쳐일어나 내외호전광들의 악랄한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백해무익하며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증대시키고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정치군사적대결을 끝장내는것은 우리 민족의 절박한 투쟁과제로 나서고있다.

괴뢰패당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감행하려 하면서 아무리 《대화》타령을 늘어놓아야 그것을 곧이들을 사람은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신들의 혈세가 동족을 해치고 핵재난까지 초래하는 침략전쟁소동에 허무하게 탕진되는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그 무엇을 자꾸 내들고 북남관계에 복잡성을 조성할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되여있는 북남합의들을 존중하며 외세와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 대결에 환장하여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 통일의 시대적흐름을 무시하고 북침전쟁도발소동에 광분하는자들은 우리 민족의 저주와 규탄,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절대로 면치 못할것이다.

그 어떤 침략세력도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을 당해낼수 없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사상과 정견,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여넘어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책동을 끝장내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하여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평화와 조국통일위업을 해치는 북침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야 한다.

박 철 준

간또대지진때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추도모임 진행

간또대지진때 일제가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한 때로부터 91년이 된것과 관련하여 1일 도꾜에 있는 간또대진재조선인희생자추모비앞에서 도꾜동포추도모임이 진행되였다.

박구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황명 총련 도꾜도본부 위원장, 중앙단체, 사업체책임일군들, 간또지방의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그리고 일조우호촉진도꾜의원련락회 부대표를 비롯한 일본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황명위원장이 추도사를 하였다.

그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이역땅에 강제로 끌려와 죽음을 당한 피맺힌 원한의 력사가운데서도 절대로 잊을수 없는것이 바로 간또대지진때 감행한 일제의 조선인학살만행이라고 단죄하였다.

1923년 9월 1일 간또지방을 휩쓴 대지진때 일제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터무니없는 류언비어를 퍼뜨리고 군대와 경찰은 물론 민간인으로 무어진 《자경단》을 내몰아 우리 동포들을 대대적으로 무참히 학살하였다고 규탄하였다.

그때로부터 91년이란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일본당국은 조선인대학살만행의 력사적사실을 은폐하고 외면하고있으며 공화국과 총련을 적대시하고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최근 요꼬하마시가 중학교사회과목참고서에서 간또대지진때 감행한 일제의 만행과 관련하여 조선인《학살》표기를 《살해》로 수정한것을 비롯하여 지방자치체들에서 력사를 외곡하고 일본의 국가책임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로골화되고있으며 일본정부는 고등학교지원제도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제외하는 등 우리 학교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해나가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일본의 과거죄악을 청산하고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철폐시키기 위한 전동포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당국은 지난 세기의 피비린 침략정책, 식민지정책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민족적박해와 인권침해를 그만두며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옳바른 과거청산에 기초한 조일관계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새 세대들이 피맺힌 원한의 력사를 절대로 잊지 않고 일본땅에서 민족의 존엄을 꿋꿋이 지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계속되는 일본당국의 반공화국, 반총련, 반조선인책동을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안고 저지파탄시키며 단결의 힘으로 우리 조직, 우리 생활, 우리 후대를 지켜나갈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추도모임에서는 일본인사들의 발언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여 파업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서울대학교병원 로조가 8월 27일 괴뢰당국의 의료민영화를 반대하여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단체는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는 가운데 병원측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등 민영화실현에 앞장서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로조원들이 투쟁에 나섰다고 단체는 밝혔다.

응원단파견은 왜 성사되지 못했는가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는 내외여론의 커다란 관심을 모아왔다. 우리 응원단의 참가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고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은 물론 경기대회자체를 흥성거리게 할것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그를 적극 환영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응원단파견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였다. 얼마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괴뢰당국의 부당한 처사로 하여 우리가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 응원단을 내보내지 못하게 되였다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이와 관련하여 내외에서 비난과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바빠난 괴뢰패당은 통일부 대변인을 내세워 《유감》이니, 《외곡주장》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우리의 응원단파견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너절한 방해책동을 일삼은자들이 이제 와서 아닌보살을 하는것은 실로 뻔뻔스러운짓이다.

지난 7월 우리 공화국은 정부성명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한데 대하여 천명하였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북남실무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하였다.

이 소식에 온 남조선이 들끓었다. 남조선언론들은 응원단파견결정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과 화해협력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경기대회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된다고 련일 대서특필하였다.

우리 응원단이 나간다는 소식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자 급해맞은 괴뢰패당은 그 무슨 《국제관례》니 뭐니 하면서 《북응원단의 체류비용》은 《자체부담이 원칙》이라는 나발을 불어대기 시작했다. 또한 어용나팔수들을 내세워 《대남정치공작대》니, 《남남갈등조성》이니, 《미인계》니 뭐니 하면서 우리 응원단이 경기대회에 참가하면 이목이 그에 쏠리여 《주객이 전도될수 있다.》느니, 응원단에 대해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느니 하는 불순한 여론을 내돌렸다.

우리의 응원단파견을 달가와하지 않는 괴뢰들의 속심은 7월 1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실무회담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우리측은 선수단과 응원단의 래왕경로 및 운수수단, 숙소리용과 응원문제를 비롯한 실무적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관례에 기준하면서도 북남사이의 현정세를 충분히 고려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오전회담에서 우리 제안의 합리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꼬박꼬박 받아쓰고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2003년 대구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의 전례까지 입에 올리며 《북의 성의》니 뭐니 하고 너스레를 떨던 남측대표들의 태도는 오후에 갑자기 돌변하였다. 《서울지령》을 받느라고 2시간 15분이나 늦어 오후회담장에 나타난 남측은 저들이 한 말을 다 뒤집고 우리 제안에 대해 조목조목 생트집을 걸기 시작했다.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규모에 대해 시비질하고 그 무슨 《국민정서》와 《신변안전보장》을 운운하며 공화국기와 통일기를 드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느니, 《규격이 큰것은 안된다.》느니, 《통일기를 들어야 할 의미》를 설명해달라느니 하고 도발적으로 나왔다. 나중에는 우리가 언급하지도 않은 비용문제를 꺼내들고 《자부담원칙》이니 뭐니 하며 치사스럽게 놀아댔다. 결국 회담은 결렬되고말았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우리의 선의와 노력에 대한 초보적인 리해도 없이 의심부터 앞세우고 터무니없이 시비를 걸면서 순수한 체육활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괴뢰당국의 불순한 망동은 내외의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인천시민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해나섰다. 그도그럴것이 우리 응원단이 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에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는것은 물론 특색있는 경기응원과 다채로운 활동으로 경기대회를 보다 흥성거리게 하여 대회의 성공적개최에 도움을 주면 주었지 나쁠것이 없었기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남조선당국은 회담을 결렬시킨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까지 내세워 마치도 그 무슨 비용문제때문에 회담이 파탄된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의 아량을 보여주었다. 7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담화를 통하여 우리가 선수단과 응원단의 경기대회참가를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고있다는것을 밝히고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내보내는 문제를 인내성있게 대할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각계는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가 북남관계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일제히 환영하였다. 남조선의 많은 단체들은 북남민간공동응원단구성을 위한 준비사업에 나설것을 괴뢰당국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괴뢰패당은 회담결렬의 책임을 끈덕지게 우리에게 넘겨씌웠다. 그들은 북남사이의 실무접촉재개를 《먼저 제의할 계획이 없다.》는 망발까지 늘어놓았다.

괴뢰당국이 이처럼 우리 응원단의 경기대회참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한사코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응원단을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 사태의 진상은 바로 이러하다.

북남관계가 지금처럼 최악의 상태에 처해있는 속에서 우리 응원단이 인천에서 진행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것은 북남사이의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매듭을 풀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로 될수 있었다.

하지만 괴뢰당국이 당치도 않은 시비를 걸면서 심술을 부리고 못되게 놀아댄 결과 우리 응원단의 경기대회참가는 끝내 성사될수 없게 되였다. 군사분계선에서 지척인 인천에서 진행되는 국제경기에 우리 응원단이 참가하지 못하게 한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한사코 반대하는 괴뢰패당이 저지른 씻을수 없는 반통일죄악이다.

남조선괴뢰들은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며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갈수록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용납못할 범죄행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본사기자 리효진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응원단이 나갈수 없게 가로막은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망동을 규탄하여 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남조선괴뢰패당이 북의 응원단파견을 가로막고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러나 괴뢰패당의 정체는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신성한 체육문화교류를 불순한 정치적목적과 동족대결에 악용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괴뢰패당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있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라는것이 이번에 여실히 증명되였다.

또한 《신뢰》요, 《대화》요, 《협력》이요 하는 말들을 곧잘 내뱉는 남조선당국의 이중적정체가 낱낱이 발가졌다.

지난 시기 부산과 대구에서 진행된 경기대회때 북의 응원단이 있음으로 하여 경기장들은 환희와 격정으로 들끓었고 남조선은 물론 해외동포들도 《조선은 하나다!》, 《조국통일!》의 함성을 터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열망하였다.

외국인들도 조선응원단이 제일이다, 어디에서도 이런 훌륭한 모습을 볼수 없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때문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이번에 북의 응원단파견을 적극 지지환영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유독 동족대결을 일삼는 남조선당국만은 북의 응원단파견에 대해 못마땅해하면서 온갖 시비중상과 방해책동을 다하여 끝끝내 가로막았으며 이제는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자 《구두통보》니, 《비공식적》이니 하며 발뺌해보려 헤덤비고있다.

재중조선인들은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를 이룩하기 위한 공화국의 노력을 외면하면서 불신과 반목의 장벽만을 높이 쌓다 못해 응원단파견까지 끝끝내 가로막은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망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

체육경기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동족대결과 불신의 기회로 삼으려고 획책한 괴뢰패당의 죄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야 말것이다.

민족화합의 새 장을 펼칠 절호의 기회를 가로막은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처사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조선중앙통신】

부정부패를 일삼는 괴뢰국회의원들

8월 21일과 22일 남조선 《KBS》, 《MBC》방송들에 의하면 괴뢰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행위가 드러나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새누리당》소속 《국회》의원 송광호는 고속철도부속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 0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같은 당의 조현룡도 한 업체로부터 1억 6 000만원을 넘겨받았다.

새정치민주련합소속 《국회》의원 김재윤은 학교이름을 바꿀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5 000여만원을 받아먹었다 한다.

한편 새정치민주련합소속 《국회》의원 신학용의 금고에서 억대의 현금이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문제는 그것이 출판기념회때 받은 돈으로서 합법적으로 되고있다는것이다.

출판기념회는 주로 선거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리는데 이 과정에 보통 1억원 최고 수억원의 돈이 괴뢰국회의원들의 주머니에 들어오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신고할 의무도, 공개할 리유도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출판기념회는 괴뢰통치배들이 정치자금을 모아들이는 통로로 애용되고있다.

정치인들자체가 출판기념회를 두고 모자라는 정치자금을 받을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로골적으로 말하고있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괴뢰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출판기념회놀음을 벌리고있는데 지난 4년동안에만도 많은 의원들이 한명당 두번 지어 여섯번이나 기념회를 열어 그 총회수는 수백회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MBC》방송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렇게 모은 돈은 결국 대가가 있기마련이다. 무엇인가 주고받는 뒤거래가 있을수밖에 없을것이다. 투명하지 않은 돈에서 결코 투명한 정치가 나오지 않을것이다.

6.15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해외에서까지 범죄로 물의를 일으키는 남조선

얼마전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까지 범죄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국제적망신을 초래하고있다.

새정치민주련합소속 《국회》의원이 괴뢰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과 일본 등 세계 40개 나라에서 범죄행위에 돌아치다가 수감중에 있는 남조선사람이 모두 1 170여명이나 된다는것이 밝혀졌다.

이들중 근 100명은 송환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남조선사회에 만연된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 해외에까지 확대되여 세계적비난과 조소를 받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적극 따라배우고있다.
—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에서 —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구성시 청룡리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당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전위투사라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입당할 때 다진 맹세를 훌륭히 지켜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잘하고있다.

얼마전 제3작업반에 나갔던 리당일군은 농장원들이 어려운 전투과제를 앞에 두고있는것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당원들의 협의회를 열었다. 리당일군은 당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그들이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도록 고무격려하였다.

이날 작업반의 당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어려운 전투과제를 성과적으로 해제끼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갔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믿음과 사랑속에서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는 전세대 당원들의 투쟁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어 리안의 모든 당원들이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본받아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장명길

과학적인 로동정량제정으로 이룩한 성과

자강도공급탄광에서

자강도공급탄광에서 석탄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있다. 최근에 탄광에서 자체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과학적인 로동정량을 제정하여 탄부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고있는것은 석탄생산이 정상화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업관리에서 과학적인 로동정량제정으로 탄부들의 로동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는것은 단순히 경영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며 모든 생산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이다.

그러면 탄광에서 어떻게 과학적인 로동정량을 제정하고 탄부들의 하루일을 정확히 평가하게 되였는가.

그 어느 탄광이나 생산실적은 지하막장에서 생산활동을 벌리는 개별적탄부들의 창조적로동의 결과에 의해 마련된다. 특히 탄광의 직접부문에서 일하는 탄부들의 생산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옳바로 설정하여야 생산자들의 열의를 높일수 있다.

그런데 이 탄광의 경우 지난 시기 개별적탄부들의 로동정량계산과 평가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있었다.

례를 들어 막장조건이 좋은 갱에서 일하는 탄부들은 품을 적게 들이고도 생산실적을 높이는데 어떤 탄부들은 같은 기술기능으로 배가의 노력을 기울였어도 물동이 터지고 붕락이 이는 등 채탄장의 불리한 조건으로 실적을 높이지 못하였다. 이런 경우 생산실적 일면만을 놓고 탄부들의 하루일을 평가한다면 전반적탄부들의 생산열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은 명백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 조춘남동무는 기업관리의 정보화를 실현하는 사업을 통하여 현실이 기다리는 문제를 해결할 목표를 내세웠다.

무엇보다도 탄부들이 일하는 막장의 구체적인 조건과 예견되는 정황을 반영한 자료기지를 형성하여야 하였다. 자료기지의 정보원천보장은 갱의 초급일군들과 갱담당 소참모회성원들이 맡아하도록 사업분담을 조직하였다. 갱들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다름아닌 갱의 초급일군들과 탄부들이라면 탄광과 갱사이의 기업정보를 련결하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갱단위별 소참모회성원들이기때문이였다.

갱들의 구체적인 자료들이 집중된데 기초하여 지배인과 기사장은 정보실의 프로그람작성자들에게 1m당 출탄량, 자재운반거리, 침수조건, 탄층의 굳기, 암석세기, 막장공기상태 등 탄부들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11개의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10여개의 작업결수를 설정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후 강성만동무를 비롯한 탄광정보실의 기술자들은 참모부와 갱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기업정보프로그람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완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투를 벌려 빠른 시일안에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실례로 1m당 출탄량이 20t이고 자재운반거리가 300m인 채탄막장이라고 하자. 여기에 탄층의 굳기와 막장공기상태 그리고 막장으로 흘러드는 물의 량을 계산하여 입력하고 탄부들의 하루일을 정확히 평가할수 있도록 작성된 프로그람의 시동단추만 누르면 해당 조건에서 채탄공 일인당 얼마만 한 생산실적을 낼수 있다는 예측값이 나온다. 여러달에 걸치는 분석결과 로동정량계산프로그람의 과학성과 정확성이 확증되였다.

결국 자체의 실정에 맞게 탄부들의 하루일을 정확히 평가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이러한 성과는 탄부들의 생산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탄부들의 앙양된 열의는 곧 석탄생산실적으로 이어졌다.

올해 탄광에서 매달 25일이면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고 전망굴진도 6개월이나 앞세운 사실이 잘 말해준다.

탄광에서는 탄부들의 로동정량계산을 과학적으로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데 그치지 않고 하루일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재절약, 기술혁신에 의한 평가점수도 놓치지 않고 적용하였다.

결과 탄부들속에서는 지난 시기에는 그냥 묻어버리군 하던 동발나무를 회수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게 되였다. 지난 6월 한달만 놓고보아도 회수리용된 동발나무로 국가적보장이 없이도 석탄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었다.

탄광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매달 23일이면 어김없이 진행되는 기술공정심의에 반영된 생산경제적지표들을 경영정보체계에 빠짐없이 입력하여 탄부들의 한달로동정량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고있다. 이와 함께 10일에 한번씩 변화되는 막장조건과 예견되는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참모부와 정보실에 집중하여 경제작전의 주도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탄광에서 이룩된 성과를 놓고 볼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문제가 있다. 탄광의 구체적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구체적실정에 맞는 프로그람을 작성하여 기업관리정보화를 실현하여야 변화되는 환경과 조건에 맞게 탄부들의 로동정량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그들의 하루일을 정확히 평가할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람작성에 참가한 탄광정보실 조정옥동무는 정보기술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탄광의 실정을 잘 알고있고 채굴공학을 전공한 기술자이다. 그는 탄광의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가정부인의 몸이지만 국가과학원으로, 인민대학습당으로, 막장으로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 이렇듯 훌륭한 성과를 안아왔다.

탄광의 경험은 기업관리의 정보화가 탄부들의 생산열의를 높이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미국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을 상실하였다

세계적으로 미국만큼 《인권》과 《인도주의》에 대하여 열심히 떠드는 나라는 없다. 그들은 《인권》과 《인도주의》를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두려움없이 맞받아나아갈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마치 저들이 《인권》의 수호자, 《인도주의》의 체현자인듯이 선전하고있다. 《인권보장은 인간재생과 인간존엄을 위한 인도적조치》라느니 뭐니 하는 귀맛좋은 소리들은 미국의 인권론자들의 입에서 늘쌍 울려나왔다.

그러나 《인권의 모범》, 《인권옹호국》으로 자처하며 쩍하면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걸고들어 《재판관》행세를 하여온 미국은 요즘 꿀먹은 벙어리행세를 하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미주리주 퍼구슨시에서 한 흑인청년이 백인경찰의 총에 맞아 사살되고 이에 대한 항의시위에 떨쳐나선 주민들에게 경찰들이 총을 겨누고 최루탄과 연막탄을 사용하면서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최근에는 다른 도시에서 경찰이 흑인청년을 또 쏘아죽이는 류혈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미국이야말로 인종과 피부색때문에 차별과 멸시를 당하고 주민들이 언제 총에 맞아죽을지 몰라 공포에 떨어야 하는 암담한 인권유린국가이라는것을 세상사람들에게 보여준다.

미국신문 《로스안젤스 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출판보도물들은 흑인살해사건으로 미국의 인권기준이 국제언론계의 도마우에 올랐다고 비평하였다.

해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곧잘 점수를 매기던 미국집권자들이 입이 얼어붙어 침묵을 지키고있지만 국제사회는 미국의 인권실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있다. 미국은 인권불모지, 이것은 세계공동의 평가이며 공정한 판결이다.

미국의 한심한 인권형편에 대하여 까밝혀볼 필요가 있다.

《유엔인권선언》에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여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처럼 인간생명이 허술하게 취급되고 수시로 침해당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사회에서는 인간존중의 정신이 아니라 심심풀이로 사람을 총으로 쏘아죽이는 살인풍조가 차넘치고있다. 미국에서 총기류에 의한 살인사건은 보통현상으로 되고있다. 미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매일 평균 265명이 총에 맞고 그중 87명이 목숨을 잃고있다.

인권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차별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할뿐아니라 로동과 휴식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물질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에게 혹심한 차별을 두고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빈부의 차이가 가장 심한 나라이다. 인구의 0.02%에 불과한 사람들이 미국자산의 60%를 차지하고있다.

가난한 사람들과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은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고있으며 그들의 인권은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만민평등》, 《인권옹호》를 입버릇처럼 웨치는 미당국자들이 자기 나라의 처참한 인권상황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있는것은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의 구호가 사람들을 기만하고 세계지배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에 있어서 《인권문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패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되고있다.

그들은 《인권옹호》의 몽둥이를 들고 세계도처에서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다른 민족들의 인권을 마구 짓밟고있다.

미국은 지난 시기 침략무력을 파견하여 작은 나라들을 덮칠 때에도, 주권국가를 침공하여 그 나라 국가수반을 랍치해갈 때에도 《민주주의수호》, 《인권옹호》의 구호를 들었다.

그들은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느니, 《인권은 주권우에 놓인다.》느니 하고 떠들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력침공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미국이 해마다 《년례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는것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내정간섭을 일삼기 위한 건덕지를 잡자는데 있다.

미국이 《평화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자기의 가치관과 《인권기준》을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며 《인권옹호》의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기때문에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도 미국의 《인권옹호》몽둥이의 희생물로 되였다.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세계제패를 위하여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가소로운것은 미국이 우리 나라에 《인권문제》라도 있는듯이 사실을 외곡날조하여 우리 공화국을 중상모독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이 우리 나라의 《인권문제》를 입에 올리는것자체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주제넘은 행동이 아닐수 없다.

인권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이며 인간의 자주적권리를 원만히 보장하는 사회가 진정한 인민적사회이다.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꼭같이 동등한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며 행복하게 생활하고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을 빼앗긴 인민은 상가집 개만도 못한 신세에 처하게 된다는것을 지난날의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살이의 체험을 통하여 뼈저리게 체득하였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이며 삶의 요람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그와 운명을 같이할 드팀없는 의지를 안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하고있다. 이러한 우리 나라에 대해 미국이 《인권문제》를 운운하는것은 너절하고 비렬한짓이다. 미국이 우리 나라의 《인권문제》를 운운하는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다.

우리에게는 미국의 《인권》공세가 절대로 통할수 없다. 미국이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적혼란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있지만 그것은 마른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것만큼 어리석고 부질없는짓이다.

미국은 남의 나라를 넘겨다보기 전에 저들의 한심한 인권문제에나 신경을 써야 한다.

《인권문제》로 허세를 부리던 미국의 위신은 이미 새 세기에 들어와 세계의 면전에서 여지없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후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여기에 틀고앉아 이 기구를 좌지우지해오던 미국은 유엔경제사회리사회산하의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성원국선거에서 떨어져 처음으로 성원국자리를 떼우고 쫓겨났다.

미국이 국제사회가 저들을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인권옹호》의 간판을 내들고 계속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려들다가는 큰코를 떼울수 있다.

미국은 별로 맥도 추지 못하는 《인권몽둥이》를 그만 휘둘러대야 한다.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을 상실한 인권락제생 미국에는 국제인권재판정의 피고석이 제격이다.

리 현 도

인디아인사 담화 발표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인 인디안 앤드 월드 이벤트신문사 주필 위핀 굽따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얼마전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8월 15일을 맞으며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신 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간고하고 험난한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조선인민은 그처럼 바라던 민족재생의 광휘로운 새 아침을 맞이할수 있었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멀리 흐르고 세대도 여러번 바뀌였지만 주석께서 소원하시던 조선의 완전한 자주독립은 이룩되지 못하고있다.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완전해방, 민족의 자주권을 성취하지 못하고있으며 외세가 강요한 장기간의 민족분렬로 하여 조선민족은 참을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겪고있다.

해방후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세계제패실현을 위한 침략의 발판으로, 극동최대의 군사기지로 전락시킨 미국은 오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내들고 전조선반도를 타고앉으며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패권과 군사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외세가 강요한 장기간의 민족분렬

사대와 굴종에 물젖은 력대 남조선의 친미보수《정권》은 미국의 돌격대, 하수인이 되여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을 추구하며 민족내부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조국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아왔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고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조선은 올해에 들어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제안들과 조치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그러나 동족의 진정어린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뿌리치고 외세추종과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리는 남조선당국에 의해 북남관계개선의 길은 좀처럼 열리지 못하고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접경에로 계속 치닫고있다.

통일의 암적존재인 미국이 남조선을 타고앉아 모든것을 좌우지하고있는 한 북남관계를 궁극적으로 개선해나갈수 없고 언제 가도 조선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즉시 철수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세계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선군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

선군절에 즈음하여 로므니아, 인디아, 뻬루, 앙골라에서 경축모임, 토론회, 사진,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 독보회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사진, 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조선의 총대》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므니아근로자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8월 25일은 영원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각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뜻깊은 날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전기간 인민군대를 강화하시고 군대를 기둥으로 하여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전례없는 압살책동속에서도 조선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그이의 선군혁명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김정일각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8월 25일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것이라고 확신한다.

인디아 김정일로작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를 떠나 강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한 조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을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령도로 나라의 군력을 강화하시였을뿐아니라 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조선은 세계가 공인하는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되였다.

이러한 경이적인 사변을 안아오신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은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릴것이다.

주체선군정치연구 뻬루—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정일각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의 생활력은 군사뿐아니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 등 모든 분야에서 뚜렷이 과시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앙골라 마꼬회사 사장 등 인사들은 일심단결로 필승불패하는 조선의 경이적인 현실은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령도로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을 담보하는 강력한 군력을 마련하신 그이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를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김정은각하를 모신 조선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고 강조하였다.

* *

선군절에 즈음하여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 쉐. 샤브돌로브가 8월 2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8월 25일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4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선군혁명령도로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지난 세기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한길로 드팀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대처하여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였으며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였다.

그이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의 국방력은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다.

또한 조선의 자주권과 사회주의가 수호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담보되게 되였다.

오늘날 선군정치를 따라배우는것은 하나의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지금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강성국가건설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선군조선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요구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가 8월 29일 일본의 인종차별청산협약리행보고서 심의와 관련한 결속의견서를 발표하여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였다.

의견서는 일본에서 외국인들과 소수민족, 조선인들에 대한 우익집단의 인종차별적시위와 집회 등 증오고취언행이 우심하게 벌어지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일본정부가 인종적폭행을 고취하는 발언들을 엄격히 통제하며 증오고취언동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과 책임있는자 또는 단체들에 대해 조사, 기소하며 그 근원을 해결할것을 주장하였다.

성노예범죄와 관련하여 의견서는 일본당국이 구일본군에 의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있는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며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서는 성노예문제가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항구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부정하거나 중상하는 행위를 규탄할것을 촉구하였다.

의견서는 또한 재일조선학교들을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재일조선어린이들의 교육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들에 우려를 표시하고 지방자치체들이 조선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재개 또는 유지하도록 할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였다.

* *

일제의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아시아나라들사이의 련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본시민단체들의 집회가 8월 27일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동북아시아에 비핵, 평화의 확립을, 일조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련락회》 공동대표 겸 사무국장 이시자까 고이찌, 도꾜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대표 니시자와 기요시,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배제를 반대하는 련락회 대표 하세가와 가즈오를 비롯한 일본 각계 인사들과 총련일군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 위원장 손형근, 기타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일본의 시민단체 인사들이 연설하였다.

그들은 일본정부가 과거력사를 부정하고 일본제국주의가 감행한 조선인강제련행과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공식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비난하였다.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제도의 즉시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운동이 널리 확대되고있으나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일본정부가 이를 받아들일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과거 일제의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며 일조국교정상화와 북남공동선언에 기초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련대성활동을 적극 벌려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무더기비피해 계속 확대

일본의 히로시마현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무더기비로 50여곳에서 흙사태가 나면서 8월 26일현재 사망자수는 66명으로 늘어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되였다.

또한 살림집들이 흙속에 묻혀 1 000여명의 주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다.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국방력강화노력

로씨야에서 국방력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있는 속에 최근 신형이동식대공미싸일종합체 《웨르바》가 군대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동부군관구의 항공륙전사단과 기계화보병려단이 이 미싸일종합체로 이미 장비되였다고 한다.

이 이동식대공미싸일종합체는 탄두의 정밀도와 장애극복능력이 종전의것보다 향상되였으며 목표소멸범위가 근본적으로 확대되였다고 한다.

기본장점의 하나는 순항미싸일이나 무인기와 같이 열복사가 작은 목표들에 대한 명중률이 높은것이라고 한다.

또한 로씨야—몽골반테로훈련 《쎌렌가—2014》가 최근 몽골의 할힌골에서 진행되였다.

8월 27일에 끝난 이번 훈련에는 두 나라에서 1 000여명의 군인들이 참가하였으며 150대의 전투기술기재들이 동원되였다.

훈련과정에 군인들은 비법적인 무장조직을 소멸하기 위한 협동작전을 련마하였다.

경제 장성

인디아에서 4월에 시작된 현회계년도의 첫 3개월동안에 경제가 5.7% 장성하였다.

8월 29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체육발전노력

먄마에서 체육발전에 큰 힘을 넣고있다.

나라의 전반적인 체육수준을 끌어올리고 유능한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9월 1일부터 26일까지 전국적인 체육경기대회들이 진행되게 된다.

이 기간에 네이삐도와 양곤 등 4개의 도시들에서 축구, 정구, 자전거, 사격을 비롯한 경기들이 벌어지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이란에서 세멘트생산

로씨야 미국과 서방의 제재정책을 비난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가 최근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배격하였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국제법에 대한 위반행위로 된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는 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로씨야는 나라의 안전과 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과 유럽동맹은 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부당한 행동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로씨야외무성 부상 쎄르게이 랍꼬브가 8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제재정책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대로씨야제재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로씨야의 대응조치로 하여 좋은 기회만을 잃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이 나라들은 그 어떤 목적도 이루지 못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전염병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립장 천명

아프리카동맹위원회의 한 고위관리가 8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에볼라비루스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할 아프리카동맹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에볼라비루스의 전파를 막는것이 현시기 동맹이 관심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라고 하면서 서아프리카지역 나라들이 이 사업에서 호상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아프리카동맹은 에볼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병지역 나라들을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방조할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적들의 침략에 맞설 립장 강조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상이 8월 24일 이란무장력은 적들의 침략책동에 단호히 맞설 준비가 되여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최근 이란군이 이스라엘무인기를 나탄즈근처에서 격추시킨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은 자기 나라가 적들의 침략행위에 심대한 반격을 가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란무장력은 그 어떤 군사적위협에도 즉시에 대응할수 있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파업과 집회

뽀르뚜갈의 싼따렘시에서 얼마전 처지개선을 위한 간호원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에 참가한 수많은 간호원들은 당국이 가혹한 로동조건에서 오랜 시간 일을 시키고도 보잘것없는 임금을 지불하고있는데 대해 신랄히 규탄하고 로동조건과 처지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도이췰란드에서 8월 29일 항공운수업체인 루프트한자회사소속 비행사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참가자들은 로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줄것을 회사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파업으로 전국의 주요비행장들에서 비행기운행이 마비상태에 빠져 혼란이 조성되였다.

일본 사가현의 사가시에서 8월 30일 당국의 미군수송기배비계획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시정부청사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수백명의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당국이 앞으로 현에 10여대의 미군수송기를 끌어들이려는 기도를 드러낸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어 그들은 시내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그러한 계획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는 구호를 웨쳤다.

경제 침체, 실업자 증대와 범죄 성행

—일본의 주요 8개 자동차생산업체들에서 7월에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 줄어들었다.

한편 네데를란드의 금융업체인 에쓰엔에쓰 리알은행에서는 상반년에 1억 2 500만€의 리윤손실이 초래되였다.

또한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경제형편이 악화되고있다.

8월 28일 유럽동맹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8월에 유로를 사용하는 동맹성원국들의 경제형편을 보여주는 주요경제지수가 그 전달에 비해 1.5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도이췰란드에서 8월에 실업자수가 290만 2 000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달에 비해 3만명 더 늘어난것이라 한다. 8월 28일 련방로동사무소가 이에 대해 밝혔다.

또한 프랑스에서 7월에 실업자수가 342만 4 000명에 달하였다. 8월 27일 이 나라 로동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청년실업문제가 의연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최근 동맹통계국은 7월에 성원국들에서 25살미만 실업자수가 506만 2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8월 21일 미로동성은 16일까지의 지난 1주일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29만 8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의 로스안젤스시와 그 교외에서 8월 24일 3건의 류혈적인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

결과 3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부상당하였다. 련이은 총기류범죄는 미국사회의 부패성을 여실히 드러내보이고있다.

또한 일본에서 도박행위가 성행하여 사회적인 문제거리로 되고있다.

8월 20일 이 나라 후생로동성은 도박에 빠져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의 수가 전국적으로 500만명이상에 달한다고 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요꼬스까에 기여든 전쟁괴물 《하와이》호

얼마전 상대측에 은밀히 접근하여 핵선제공격을 가하는것을 임무로 하고있는 미핵잠수함 《하와이》호가 모항인 하와이의 진주항을 떠나 일본의 요꼬스까미해군기지에 기여들었다. 그저 스쳐지나보내기에는 너무도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이다.

미군부당국자들이 《하와이》호의 요꼬스까미해군기지 기항을 놓고 아시아동맹국들의 안보가 의연히 미국의 대외정책의 일부분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한것이라느니, 적수들에게 경고하기 위한것이라느니 뭐니 하지만 그것은 유치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핵잠수함 《하와이》호의 요꼬스까미해군기지 기항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한것이다. 미국이 적수라고 한것은 우리 공화국을 념두에 둔것이다.

핵선제공격을 기본임무로 하는 《하와이》호가 남조선에서 우리를 겨냥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핵전쟁연습소동이 벌어지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요꼬스까미해군기지에 기여든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수 있다.

요꼬스까미해군기지로 말하면 미국이 대조선침략정책실현에서 매우 중시하는 곳이다. 그것은 요꼬스까에서 함선들이 출발하는 경우 빠른 시간내에 조선반도에 도달할수 있고 또 미국본토에서 병력과 전쟁장비들을 조선반도에 전개하는데서 유리한 중계기지로 되기때문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이곳을 7함대사령부의 거점으로 삼고있다. 7함대무력은 미국의 가장 큰 해상기동타격무력이다. 미국은 새로운 조선전쟁을 도발하는데서 7함대를 중시하고있으며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 미국은 앞으로 7함대를 리용하여 해상으로부터 우리에 대한 강력한 선제타격을 가하려 하고있다. 조선반도유사시 미국이 7함대의 주력으로 되고있는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를 조선전선에 제일먼저 파견하려 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앞으로의 조선전쟁을 타산하여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를 비롯한 순양함, 구축함 등 각종 전투함선들을 요꼬스까에 항시적으로 배비해놓고있으며 남조선에서 우리를 겨냥한 전쟁연습소동을 벌릴 때마다 들이밀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방법을 숙달하자는것이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를 조선동해와 남해에 진입시켜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침공하기 위한 공격작전훈련을 강행하였다.

미국은 요꼬스까미해군기지를 우리를 반대하는 정탐모략기지로도 리용하고있다. 이미전부터 미국은 여기에 간첩선들을 배치해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탐모략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지난 세기 우리 공화국령해에 침입하여 정탐활동을 벌리다가 나포된 《푸에블로》호의 모항도 바로 요꼬스까미해군기지였다.

요꼬스까미해군기지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전초기지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 바로 이런 곳에 미국의 불장난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고있던 때에 핵선제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핵잠수함 《하와이》호가 기항한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국은 지난 세기 조선전쟁도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도발하였으며 새 세기에 들어와 이라크전쟁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력침공도 그렇게 시작하였다. 이것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책동으로 여전히 초긴장상태에 놓여있다. 미국은 겉으로는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바란다느니, 적대시할 의사가 없다느니 뭐니 하지만 실지로는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우리를 걸고 무력을 증강하고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 전쟁연습소동을 빈번히 벌려놓고있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있으며 오직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은 위협을 받고있으며 지역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이런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때에 핵선제공격임무를 맡고있는 《하와이》호가 침략의 전초기지인 요꼬스까에 들어온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군사적위협을 들이대다가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새 조선전쟁을 도발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있을수 있는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언제나 고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있으며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다.

본사기자 리 학 남

ㄱ-41137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